

世界資本主義體制의 韓國經濟

表 鶴 吉

本稿의 목적은 世界資本主義體制內에서 韓國資本主義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에 대한 諸論議를 검토하고 그에 대한 실증적 평가를 단행하는 데 있다. 본고에서는 먼저 國家獨占資本主義論과 成長段附理論의 시각에서 한국자본주의를 설명하고 있는 논의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최근 학계에서 제기된 바 있는 中進資本主義論을 재해석해 본다. 중진자본주의론도 그 자체로서 한계점을 갖는 이론이지만 實證的 分析의 기초가 되는 유용한 사고의 틀과 假說들을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中進資本主義論에 근거하여 한국자본주의의 (1) 世界資本主義體制에의 편입 정도 (2) 從屬性의 정가과 잔존성 (3) 持續的 成長과 先進國과의 競合 (4) 勞動市場의 구조변화 및 (5) 貯蓄率·生産性·所得分配構造의 변화를 실증적으로 평가한다. 이러한 실증적 평가의 바탕으로 抽出되는 韓國資本主義의 과제는 政治民主化의 단성으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유도하고 美國式 資本主義보다는 日本이나 獨逸의 모형을 본받은 産業民主主義를 바탕으로 하는 資本主義를 형성하는 것이다.

1. 머리말

韓國經濟는 1962년 제 1 차 5개년계획을 시작한 이후 이제 30년을 맞이하게 되었다. 지난 30년간의 經濟開發은 한국을 絕對貧困國에서 新興工業國의 위치로 단바꿈시켰으며 이제 OECD 가입여부가 대내외적으로 논의되는 시점에 이르고 있다.

한편 東歐圈의 改革, 蘇聯邦의 와해, 남북한의 동시 유엔가입 및 EC의 확대개편 등은 새로운 國際經濟秩序를 만들어가고 있으며 韓國經濟의 위상도 변화될 수 밖에 없는 시점에 놓여 있다. 蘇聯邦의 와해, 발트 3국의 독립, 유고의 민족분규 등을 볼 때 세계정치질서는 新民族主義의 방향으로 재편되는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세계경제질서는 자본주의의 전세계적 확산이 계속되면서 地域主義와 불특회경향이 가속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것은 마치 Carr(1941)가 第2次大戰 이후의 世界政治秩序와 世界經濟秩序에 대해 예견 하였던 바가 반복될 가능성이 농후해지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그는 第2次大戰 이후 새로 생겨난 新生獨立國들이 정치적으로는 獨立性을 요구하면서도 경제적으로는 여타국들 특히 선진국들과의 相互依存性을 증대시킬 수 밖에 없는 딜레마를 예견한 바 있다. 최근 東歐圈의 급속한 와해는 소련의 공화국들을 포함한 동구 각국의 主權意識을 高揚시킨 것은

사실이나 새로운 형태의 경제적인 연대를 강화시킬 필요성을 증대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世界經濟秩序의 轉換的 시기를 맞이하는 韓國의 資本主義는 아직도 완숙한 자본주의로 완결되지 못하고 그 자체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는 中進資本主義'로서만의 골격을 갖추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향후 한국경제의 발전전망은 世界經濟體制에 깊이 편입(integrate)되어 온 과거의 발전패턴이 어떠한 양대로 계속될 것인가에 달려 있다. 즉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다음의 두 가지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첫째, 향후 한국경제의 발전이 世界經濟秩序에의 편입을 계속 수용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것인가, 아니면 矛盾과 葛藤이 창출되며 계속적인 편입이 배제되는 방향으로 전개될 것인가?

둘째, 韓國資本主義의 內部的 要因들은 한국경제의 지속적인 世界經濟에의 편입과 어떻게 조화되어 나갈 것인가?

世界經濟的 視角에서 본 한국경제의 발전전망은 궁극적으로 위에 언급한 두 가지 관점에 대한 전망으로 귀착된다. 필자는 최근 수 년 동안 從屬論議의 실증분석 [Pyo(1987)], 社會主義經濟圈內에서의 經濟從屬 연구 [表鶴吉(1988)] 및 經濟開放論議의 방법론에 관한 고찰 [表鶴吉(1986)]을 시도하면서 한국자본주의의 성립과 성격에 대한 연구는 主流·非主流를 막론하고 한국의 경제학도들로서는 회피할 수 없는 과제가 아닌가 생각하게 되었다. 특히 한국의 資本소득推計作業 [Pyo(1991b)]을 계속하면서 그리고 國富의 推計를 위한 人的 資本의 推計를 1950년대 이전으로 소급해보기 위한 노력의 과정에서 韓國資本主義의 성립에 관한 實證研究가 극히 부족한 상태임을 파악하게 되었다. 日本의 경우 大川一司(1974)등이 주도한 日本經濟의 長期遡及統計에 대한 연구는 明治維新期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데 이와 같이 장기소급이 가능한 이유는 日本資本主義成立에 관한 左·右派의 치열한 논쟁과 연구가 선행되었기 때문이다. 물론 長期遡及統計라는 실증연구의 결과는 日本資本主義史研究에 풍부한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同研究를 한 단계 높은 차원으로 高揚시키고 있다. 溝口敏行·梅村又次(1988)의 舊植民地經濟統計는 韓國과 臺灣의 기초자료를 제공함으로써 日本資本主義의 帝國主義化에 대한 연구에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

本稿를 쓰게 된 직접적인 동기는 韓國經濟에 대해서도 長期遡及統計의 작성작업이 시작되어야 한다는 인식으로부터 비롯된다. 필자는 溝口敏行·梅村又次(1988)의 推計結果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며 그들의 時系列이 중단된 1940년부터 1953년까지 이른바 韓國의 統計暗黒期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왔다. 그런데 이러한 실증연구는 아무런 목적이나 史觀이 없이 여러 통계를 집계·편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經濟史學者들에 의한 일련의 사고의 틀과 이론적 가설들을 필요로 한다. 우리들은 가령 近代化理論家들이 日本

經濟의 도약기를 언제로 파악할 것인가 하는 논의라든가 맑스주의史學者들간에 있었던 日本資本主義의 成立時期에 대한 논쟁 등이 日本經濟의 長期週及統計를 추계하게 된 동기가 되었던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물론 이와 같은 實證研究은 前述한 바와 같이 理論的·史的 論議의 質을 높이는 촉매작용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도 韓國資本主義의 성립 및 그 성격에 대한 논의는 외면한 채 長期經濟統計의 週及推計를 시도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한 현단계의 논의가 아직은 극히 초보적인 단계에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러한 논의로부터 검증가능한 假說들을 抽出하고 이를 검증하기 위한 統計資料를 검토하며, 또한 그 검증가능에 의해 새로운 이론과 가설의 전개가 촉진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현단계 韓國資本主義를 世界資本主義體制 속에서 어떻게 규정지우고 평가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지극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本稿의 목적은 韓國經濟의 中進資本主義的 발전과정을 세계경제적 관점에서 평가하고 향후의 발전전망을 논의하는 데 있다. 이하에는 먼저 世界資本主義的 시각에 입각하여 韓國資本主義의 성격을 파악한다. 그 다음 이와 같은 韓國資本主義가 중진자본주의로서의 요건을 갖추면서 발전되어 왔는지에 대한 實證的 評價를 단행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의 자본주의에 대한 실증적 평가를 바탕으로 향후 발전의 전망과 과제를 논의하기로 한다.

2. 國家獨占資本主義論과 成長段階理論

제 2 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경제는 資本主義經濟圈, 社會主義經濟圈 그리고 이들 兩大體制에 편입되지 못한 低開發國圈으로 三分할 수 있을 것이다. 해방 이후 한국경제의 발전과정을 조명해 볼 때 어느 시점에 한국경제가 低開發國圈으로부터 資本主義圈으로 편입된 것은 사실이며 그 구체적인 시점에 대해서는 상이한 견해가 있을 수 있다. 다만 여러 가지 經濟指標의 변동을 참작할 때 그 시점은 본격적인 經濟開發이 시작된 1960년대 중반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현재의 시점에서 한국경제가 이미 世界資本主義體制에 깊이 편입되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주류경제학자와 비주류경제학자간에도 큰 異見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일부의 비주류경제학자들이 내세우고 있는 周邊部資本主義論이나 新植民地國家獨占資本主義論도 韓國資本主義가 선진자본주의와 같은 國家獨占資本主義로서의 독자성을 갖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지 한국경제의 자본주의적 성격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世界資本主義體制 속의 한국자본주의의 성격에 관해서는 국내의 主流와 非主流經

濟學者들간에는 물론이고 국외의 主流・非主流經濟學者들간에도 현격한 視角差가 존재한다. 몇 년전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의 초청으로 방한하여 강연을 가진 바 있는 從屬理論學者 아민(S. Amin)은 역사상 周邊部國家가 中心國家로 이행한 적이 한번도 없었다고 주장한 후 한국경제의 先進資本主義로의 진입가능성에 대해 극히 회의적인 입장을 취한 바 있다.⁽¹⁾

외국의 主流經濟學者들 가운데서도 일부는 1970년대를 통한 한국의 고도성장이 1980년대 이후에도 지속되리라는 보장이 없다고 보고 특히 1970년대 말에는 外債問題를 크게 염려하였다. 그러나 제 2차 석유위기를 넘기고 1980년대 초의 전세제적인 경기후퇴를 이겨낸 후 1983년부터 다시 韓國經濟가 고도성장의 궤도에 진입하게 되자 한국경제의 先進資本主義로의 진입전망을 더욱 밝게 보게 되었다. 1980년대 초의 安定化政策에 대한 세계은행 및 IMF 스탭의 긍정적인 평가 [World Bank(1987), Aghevli and Marquez-Ruarte(1985) 참조]에 이어 1985년 이후 國際收支의 黑字轉換은 이와 같은 주류경제학측의 낙관론을 강화시켰다. 1989년 제102차 美經濟學會 年次總會에서는 ‘經濟開發에 관한 아시아제국으로부터의 경험’이라는 분과회의가 구성되었는데 발표된 네 논문 전부가 韓國의 성공적 개발경험을 여타국들과 대비하고 있다 [Collins(1990), Krueger(1990), Srinivasan(1990) 및 Park(1990) 참조]. Amsden(1989)은 한국이 대부분의 開發途上國들 심지어는 소위 後發工業化(late industrialization)의 과정을 이미 거친 나라들보다 더 빨리 성장한 이유를 구명하면서 한국이 工業化를 갈망하는 제 3세계국가들이 따라 배울 수 있는 유익한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2.1. 國家獨占資本主義論

한편 국내 경제학계에서의 한국자본주의에 대한 평가작업도 역시 主流・非主流로 이원화되어 왔다. ‘民衆資本主義論’이라고도 불리우는 非主流經濟學者들의 한국자본주의에 대한 해석은 周邊部資本主義論과 新植民地國家獨占資本主義論으로 압축된다.⁽²⁾ 1970년대 말부터 1980년대 중반까지 당시 한국의 대내외적 정치상황과 맞물려 일부 진보적인 사회과학자들은 從屬理論의 시각에서 한국자본주의의 성격을 규명하였다 [李大根(1985), 林玄鎭(1988)]. 이

(1) 同講演의 말미에 필자는 日本의 경우 周邊으로부터 중심으로 이행하지 않았는가라는 반문을 제기하였다. 이 질문에 대해 아민 教授는 “日本은 資本主義의 生成初期부터 中心(center)에 속하였으며 한 번도 周邊部國家가 된 적이 없었다”고 답변하였다. 그는 日本資本主義의 自立性和 帝國主義國으로서의 경험을 염두에 두고 그러한 해석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2) ‘韓國資本主義論爭’ 또는 ‘한국사회구성체논쟁’이라고 불리우는 非主流經濟學者 및 진보적 입장의 사회과학자들간의 논쟁을 참조할 수 있는데 1980년대 초에 풍미한 從屬理論이 정통성없는 이단적인 사회주의이론이라는 비판의식에서 시작된 것이다.

들의 논지는 初期從屬理論家들인 Frank(1966)나 Santos(1970) 등이 내세운 中心部—周邊部 (center-periphery)의 단순도식적인 관계보다는 Cardoso(1973)의 결합중속적 발전 (associated dependent development)이나 Amin(1976)의 ‘周邊部’ 개념을 확장한 Evans(1979)의 ‘半周邊部(semi-periphery)의 從屬的 發展’으로 한국자본주의의 현황을 설명하려고 하였다. 즉 이들은 중속적 상황에서 있는 周邊部國家도 從屬—停滯·低發展의 단순도식에서 벗어나 자본주의적 발전을 일시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한다. Duvall(1978)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중심부선진국간의 경쟁이 격화될 경우 오히려 國際資本이 주변부국가에 의존해야 하는 소위 從屬逆轉(dependency reversal)의 상황도 가능하다고 지적한 바 있는데 安忠榮 교수는⁽³⁾ 한국경제의 성장을 從屬逆轉의 사례로 평가하는 입장을 취한 바 있다.

그러나 카르도소나 에반스 등이 주변부에서의 중속적 발전이 소득분배라든가 社會의 兩極化(polarization), 周邊化(marginalization) 문제를 해결한다는 낙관적 견해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며, 중속적 발전의 一時性和 限界性을 충분히 인식할 때 궁극적인 중속으로부터의 탈피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表鶴吉(1986)]. 이와 같은 회의적인 입장은 國內學者들에 의한 최근의 從屬論議에서도 되풀이되고 있다 [李大根(1985), 윤소영(1988) 등 참조].

한국사회를 국가독점자본주의론의⁽⁴⁾ 이론적 틀로 해석하는 論者들은 한국사회가 해방 이후 자본주의화의 일반적 과정을 밟아왔으며 1960년대와 1970년대를 통하여 國家獨占資本主義가 성립되었다고 해석한다. 이러한 해석은 한국에서 後發工業化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자본가—노동자계급의 계급분화가 이룩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들은 周邊部資本主義論이 자본주의의 전세계적 확산과정에서 나타나는 中心—周邊間的 外的 規定만을 부각시키고 周邊部社會의 內的 規定에 대한 인식과 분석이 부족하다고 비판한다. 즉 이들은 주변부자본주의론이 國際的인 不平等交換關係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周邊部社會內的 계급적인 지배 관계를 등한히 하였다고 비판한다.

(3) 經濟論集 제27권 제4호(p.433)에 실린 趙淳 교수의 발표논문 “韓國經濟發展四十年—그 特性和 問題點”에 대한 論評.

(4) 國家獨占資本主義(state monopoly capitalism) 이론은 전통적 마르크스주의의 현대판 해석으로 소련 학자들에 의해 정립된 공식적 공산주의의 이론이다. 이 이론은 1930년대 大恐慌 이후의 자본주의 발전과정이 그 최후단계인 ‘金融獨占資本’에 이어 독점자본과 국가권력 사이의 유착 관계를 중심으로 국가개입의 점증현상을 초래하였음을 지적하고 이것이 자본주의 몰락의 징표라고 주장한다. 이 이론에 대한 본격적인 소개는 Jessop(1977, 1982)에 의해, 국내에서의 소개는 朴相燮(1985), 정운영(1987) 참조.

이들은 해방 이후의 시기를 세분하여 한국에서의 國家獨占資本主義의 성립과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5)

- (1) 官僚資本主義의 性格의 정착(1945~48년)
- (2) 國家資本主義(1948~53년)
- (3) 自生的 民族工業의 소멸과 金融資本의 형성(1954~60년)
- (4) 外資에 의한 國家獨占資本主義의 일반화(1961~72년)
- (5) 民間部門에서의 獨占의 완성과 産業構造의 재개편(1973~현재)

이와 같은 한국자본주의에 대한 國家獨占資本主義의 해석은 한국경제가 갖는 대외종속성이라는 현실을 적극적으로 수용한다는 취지하에 ‘新植民地國家獨占資本主義論’으로까지 발전한다 [박현채·조희연(1989) 참조]. ‘新植民地’라는 修辭은 주변부자본주의론이 제기하고 있는 외적 조건 즉 從屬關係를 國家獨占資本主義論이라는 보다 정통적인 담시즘의 틀안에 수용하려는 시도라고 해석된다.

金秀行 교수는 한국자본주의의 新植民地的 要素를 다음과 같이 논의하고 있다.

帝國主義의 世界體制가 선진국의 독점자본 또는 다국적 기업의 이익을 확보하는 체제라고 본다면, 그 체제 속의 支配와 從屬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또는 궁극적으로 先進國의 獨占資本이 최대한도의 이윤을 획득할 수 있도록 기능적으로 봉사할 수 밖에 없다. 그런데 우리 경제에서도 이미 독점자본이 성립되고 있기 때문에, 국제관계의 지배와 종속은 多國籍企業→우리의 獨占資本→民衆이라는 통로를 통하여 우리 사회에 관철하게 된다.……우리 사회는 國家와 獨占資本이 유착하고 있는 자본주의사회이므로 이중의 착취에 대항하는 민중의 생존권 투쟁은 어쩔 수 없이 國家權力의 개입을 야기하게 되는데, 이 국가권력도 제국주의적 세계체제가 우리나라에 부과한 低技術·低賃金·單純勞動의 국제분업 안에서 행사될 수 밖에 없으므로, 민중의 생존권투쟁은 정치적 억압을 받게 될 운명에 놓이게 된다는 점이다 [金秀行(1990, pp. 202~203)].

2.2. 成長段階理論

1980년대 이후 한국자본주의에 대한 학문적 논의는 국내의 主流經濟學者들간에서도 매우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물론 논자에 따라 韓國資本主義의 性格을 파악하는 데는 상당한 시각의 차가 존재하지만 대체로 한국경제를 後發工業化가 급속도로 진행된 그리고 경제개발계획으로 상당한 성공을 거둔 자본주의국으로 해석하고 있다. 주류경제학자들의 논의는 자본주의의 성립이나 성격에 대한 논의보다는 ‘韓國의 經濟發展’에 대한 評價에 치중하고 있

(5) 해방 이전에는 한국경제가 原始的 蓄積期(1905~18년), 産業資本段階(1919~29년), 金融資本段階(1930~45년)를 연속적으로 거치는 ‘식민지자본주의화’의 과정을 거쳤다고 주장한다 [朴玄採(1985) 참조].

다. 대부분의 主流經濟學者들은 암묵리에 한국경제를 세계자본주의체제에 편입된 新興工業國(Newly Industrializing Economy)으로 파악하며 이는 곧 자본주의가 國家經濟體制로 성립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⁶⁾

趙淳(1988, 1991) 교수는 한국경제가 지난 40년 동안 쿠즈네츠(S. Kuznets)가 제시한 現代經濟成長의 네 가지 특징(1인당소득 증가, 산업구조 변화, 기술진보에 의한 생산성 향상 및 국제화의 진전)을 ‘壓縮한 形態’로 나타냈다고 평가하였다. 그러나 정부주도하의 ‘壓縮成長’이 不均衡構造를 심화시켜왔으며 部門間不均衡·經濟力集中·所得分配의 不均衡 등을 시정하지 않는 한 선진자본주의에의 진입이 불확실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Hong and Park (1986)은 국내 자본시장에 대한 과도한 政府規制가 要素市場의 왜곡을 초래하여 요소배분의 효율을 손상시켜 왔으며 이러한 왜곡을 시정하지 않는 한 계속적인 高度成長이 불가능하다고 보았다.

국기개입의 정도가 과도하였다는 보다 批判的인 시각으로 한국경제의 1단계를 파악하고 있는 논문으로는 邊衡尹(1990), 林鍾哲(1990)을 들 수 있다. 첫번째 논문에서는 특히 海外依存性, 農業沈滯, 중소기업의 상대적 부진, 서비스산업의 비내, 輸入誘發的 輸出, 低國內技術, 高物價 등이 한국자본주의가 갖는 문제로 지적되고 있고 두번째 논문에서는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 강조되어 한국경제를 重商主義的 資本主義로 규정하고 있다.⁽⁷⁾

主流經濟學者들의 한국자본주의에 대한 연구는 資本主義의 성립여부, 시기, 성격에 대한 논의보다는 자본주의로서의 成長段階에 그 초점을 맞추고 있다. 명시적으로 어떠한 體制理論의 틀을 제시하기보다는 Schumpeter-Kuznets-Rostow로 이어지는 자본주의의 成長經路에 대한 이론에 입각하여 韓國經濟를 분석하고 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Rostow(1960)는 성숙된 경제(a mature economy)의 역사를 (1) 跳躍의 準備段階 (2) 跳躍期(take-off stage) (3) 技術成熟期로의 進行期(the drive to technological maturity) 및 (4) 高度大量消費의 時代(the age of high mass-consumption)라는 네 가지 단계를 거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그의 논지는 ‘성숙된 경제’가 흔히 新古典派들이 가정하는 단순한 指數的 成長經路(exponential growth path)보다는 不規則的인 成長經路(irregular growth path)를 거친다는 데 있다.

(6) 이와 같이 工業化=資本主義라는 도식에 몰려 資本主義의 기본특징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지 못하는 데 대한 비판도 있다 [林鍾哲(1990, p. 325) 참조].

(7) 특히 朴正熙 대통령 치하의 維新體制가 일본제국의 明治維新을 모방한 것으로 重商主義에 뿌리 내린 반동적인 이데올로기에 입각한 것이었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林鍾哲 교수는 “제도적, 객체적인 諸條件과 그 運動法則을 중심으로 분석한다면 지금의 한국자본주의는 이를 國家獨占資本主義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라고 논술하고 있는데 重商主義的 資本主義와 國家獨占資本主義는 兩立不可能한 개념이므로 보다 명확한 해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Dorfman(1991)이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로스토우가 이와 같은 不規則的인 成長經路를 제시한 처음의 학자도 아니요 유일한 학자도 아니지만 경제발전의 단계를 유형별로 개념화하였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게 되었다.

최근 간행된 Rostow(1990)는 戰後의 經濟成長論들을 (1) 動學的 數理模型 (2) 計量經濟的分析 및 計劃理論 및 (3) 경험에 근거한 發展論 研究(experience-based studies) 등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다. 로스토우는 이 책에서 먼저 해로드-도마(Harrod-Dormar) 모델로부터 시작된 戰後成長理論중 動學的 數理模型의 접근을 개관하고 난 후 成長理論에 대한 이러한 접근방법이 아무런 유익한 결과도 낳지 못하였다고 비판하고 있다. 두번째 접근방법인 계량적 분석방법은 Kuznets-Chenery-Denison 등으로 이어진 통계분석에 의한 성장단계의 분석 내지는 經濟計劃(economic planning)에의 적용인데 이러한 접근방법에 대해서도 그는 懷疑的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는 쿠즈네츠나 체너리 등이 사용하고 있는 經濟構造에 대한 여러 지표들이 主導的인 部門(leading sectors)들에서 일어나는 이노베이션이 다양한 聯關체널을 통하여 경제전반에 파급되는 과정 또 그 결과 생성되는 景氣變動과 經濟成長의 과정을 반영하기에는 너무나도 鈍感(blunt)한 것들이라고 비판한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는 이러한 접근방법에서 橫斷面回歸分析(cross-country regression)의 결과에 의존하여 평균적인 경제발전의 양태를 논의한다는 것은 개별국가의 成長經驗이 저마다 독특하다는 사실을 무시하는 것인 동시에 成長過程에서만 볼 수 있는 苦痛, 複雜性 및 不斷한 創造性(the pain, complexity, and endless creativity inherent in the process of growth)을 숨기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논박하고 있다 [Rostow(1990, p.367) 참조]. 로스토우는 戰後經濟成長論의 마지막 접근방법으로 Meier and Seers(1984)에 실린 각국의 成長·發展經驗에 근거한 연구들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각국의 경제여건이나 경험이 너무나도 多樣하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으로는 경제발전에 관한 하나의 명제나 가설을 성립시키는 것이 지극히 어렵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결국 그는 經濟發展史的인 역사적 연구방법론에 의존하여야 한다는 종래의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Rostow(1990, p.421, 446)는 한국이 1960년 초에 도약기를 지나 지금 현재 技術的 成熟期로 진행과정에 있을 뿐만 아니라 고도대량소비단계로 진전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國內 主流經濟學者들은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대체로 로스토우와 같이 韓國經濟의 현단계를 '技術的 成熟期로의 進行段階'로 파악하고 있는 듯하다. 또한 段階識別을 위한 방법론으로는 기초적인 통계분석과 한국에 고유한 경험연구의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즉 새로운 動學數理模型이 제시되거나 고도의 정밀한 계량분석법에 의한 연

구가 크게 진전되고 있지 못한 상태에 있다. 또한 國內 主流經濟學者들이 段階論的 成長理論에 충실한다고 하더라도 준거하고 있는 단계이론을 명확히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모호하며 따라서 한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의 移行에 대한 논의가 극히 피상적이고 年代記的이라는 인상을 피할 수 없다. 그들은 韓國經濟의 跳躍期를 대체로 1960년대 중반으로 보고 있는 듯한데 政府主導下의 經濟發展計劃이 시작된 시점을 도약기의 시작으로 보아야 하는 논리적·실증적 근거를 보다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가령 Bai(1982)에 의하면 한국의 노동시장을 분석한 결과 한국경제가 Lewis(1954)가 이야기한 轉換點(turning point)을 1975년경에 통과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전환점은 韓國經濟의 '跳躍(take-off)과 어떠한 先後關係를 갖는지에 대한 논의 등이 더욱 더 철저하게 진행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다만 최근에 大韓商工會議所(1990)와 具本湖·李奎愷(1991)은 한국자본주의의 성립과 성격의 연구에 대한 주류경제학적 시도라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2.3. 批判的 考察

한국자본주의를 國家獨占資本主義로 해석하려면 자본주의의 발전단계론의 시각에서 볼 때 그 이전의 단계 즉 商業資本, 產業資本 및 獨占資本의 단계를 설정하여야 한다. 國家獨占資本主義論이 植民地資本主義의 발전을 한국자본주의의 한 단계로 설정하려는 이유는 바로 國家獨占의 이전단계를 설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본주의의 성립기준은 '自生的' '獨自的' 資本家階級の 形成與否에 있다고 볼 때 植民地資本主義는 日本資本主義에 철저하게 편입된 것으로 독자적으로 성립된 한국자본주의의 한 단계로 파악하기 어렵다.⁽⁸⁾ 해밀튼(C. Hamilton)은 다음과 같이 논술하고 있다.

20세기 일본의 한국과 대만 점령은 새로운 동아시아 세력의 산업발전의 확장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나타난 종속적이고 왜곡된 경제는 日本經濟帝國의 완전한 한 부분이였다. 엄격한 경영의 통제하에서 대만과 한국의 국가경제는 이제 막 형성된 일본 프롤레타리아에게 요구되는 농업생산품을 공급하기 위해 조직되었다. 농업생산물의 잉여를 착취해가는 방법에 있어서 한국과 대만이 정도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지만 그 목적은 동일하였다 [Hamilton(1983)].

安秉直 교수도 동일한 해석을 내리고 있다.

1910~45년의 植民地期에는 정치적으로 日本帝國主義가 조선의 주권을 박탈하고 식민

(8) 原覺天과 같은 日本學者는 戰前 日本의 한국통치방식은 유럽의 對아시아植民地政策과 같은 착취정책이 아니라 '同化政策' 이었다고 주장하고 '韓國經濟의 奇蹟'의 연원을 日本植民地에 있던 교육의 보급과 工業化에 두고 있다 [金大煥(1986, p.266)에서 재인용].

지체제를 구축하여 同化政策을 실시하였다. 즉, 조선을 대일본제국의 한 지방으로 편입하려는 시기였다. 경제적으로는 1910~18년의 土地調査事業을 통하여 근대법적 토지 소유제도를 수립하고, 1920~30년 간의 產米增殖計劃을 통하여 地主 중심의 농업개발을 행했으며, 1930~45년의 植民地工業化를 통하여 植民地資本主義를 발전시켰다. 그 경제적 영향을 보면 土地調査事業과 產米增殖計劃을 통하여 조선에서도 本源的 蓄積이 진행됨으로써 농촌과잉인구가 조성되었으며, 식민지공업화를 통하여 朝鮮에서도 자본주의적 경제법주가 성장해갔다. 그런데 이러한 경제과정은 同化政策 즉, 민족말살정책이라는 정치과정과 더불어 朝鮮經濟의 통합성을 높이는 커녕 그것을 분단하여 일본 본토의 경제에 편입시키는 과정이었다. 즉 이것은 朝鮮이라는 나라와 民族의 消滅過程이었던 것이다 [安秉直(1989)].

國家獨占資本主義論은 기본적으로 西歐先進資本主義가 금융독점을 거쳐 독점자본주의로 정착된 후에도 利潤率의 低下를 방지하고 역동적인 資本蓄積을 계속하기 위해 國家가 獨占資本과 유착된 자본주의 발전에 대한 맑스주의학자들의 비판의식에서 출발된 이론이다. 따라서 이 이론이 한국경제의 현단계에 적용되려면 한국이 이미 '高度大量消費段階'에 들어섰고, 金融資本의 독자적 형성으로 선진국과 같은 독점자본의 단계를 거치야만 한다. 그러나 後述하겠지만 어떠한 경제지표를 보더라도 한국은 아직 이러한 단계에 진입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개입이 대규모로 이루어지는 경제체제라고 해서 독점자본주의가 國家獨占資本主義로 移行되는 것은 아니다. 필자의 판단으로는 한국이 아직도 產業資本의 成立段階에 있으며 어느 정도 獨自性을 갖추고자 애쓰는 단계에 와있다고 본다. 국가독점의 前段階인 獨占資本에도 아직 미달된 것으로 보는데 그 이유는 金融資本의 獨占化가 아직 未完成인 상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國家獨占資本主義論의 보다 기본적 결점은 그 이론으로써 국가개입의 諸條件과 한계를 밝힐 수 없으며, 국가개입의 추세에 관해서 아무런 점도 예견할 수 없다는 점이다.⁽⁹⁾

韓國資本主義를 國家獨占資本主義로 규정할 수 없는 또 하나의 이유는 아직도 한국에서는 선진자본주의국가에서 볼 수 있는 국가와 시민사회의 분리가 크게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역사적으로 資本主義經濟體制가 성숙해오면서 경제적 효율성에 장애가 되는 모든 經濟外的 論理의 간섭 내지 작용이 배제되고 결국에는 정치까지 經濟效率性論理의 자기전개에 봉사하게끔 되는 현상을 국가와 시민사회의 分離現象이라고 말한다 [朴相燮(1985, p. 256)]. 이러한 상황은 그러한 경제적 효율의 논리를 관찰할 수 있는 특정사회계층 즉 구체적으로는 자본계급으로서의 부르조아지의 등장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대체로 자본주의적 발전방식을 택한 제 3세계국가들의 경우에는 자본계급이 취약하기 때문

(9) Wirth(1977)를 인용한 朴相燮(1985, p. 17)의 논의 참조.

에 국가가 자본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고 그 결과 제 3세계국가들은 국가와 시민사회의 분리가 아니라 융합에서 그 특징을 찾을 수 있다. 韓國經濟의 현단계에서 자본계급이 형성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 階級이 국가를 도구화할 단계에 도달하지는 못하였으며 市民社會를 국가로부터 분리시킬 역할을 확보한 상태도 아닌 것이다. 무엇보다도 한국은 自生的으로 오랜 기간에 걸쳐 자본주의가 발전한 歐美의 경우와는 달리 資本主義生産樣式이 야기할 수 밖에 없는 사회적 갈등을 처리할 만한 政治的·社會的 메커니즘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半周邊部的 發展 또는 中進資本主義의 發展을 이룩해온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국가와 시민사회의 분리가 완결된 것을 전제로 하는 국가독점자본주의를 현단계의 韓國資本主義으로 규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國家獨占資本主義論이 新植民地國家獨占資本主義論으로 변형될 수밖에 없었던 사실이 국가독점자본주의론으로 한국자본주의를 설명할 수 없는 限界性을 露呈하는 것이다. ‘新植民地’라는 修辭는 바로 국가독점자본주의론자들이 放棄할려고 하였던 ‘周邊部’의 개념에서 크게 벗어날 수 없다. 버렸던 개념을 다시 수용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國家獨占의 단계는 커녕 金融獨占의 단계에도 도달하지 못한 경제가 갖고 있는 周邊性과 내외의존적 취약성을 외면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결국 ‘新植民地’라는 개념은 ‘國家獨占’이 逆行하지 않는 한 성립될 수 없기 때문에 國家獨占資本主義의 修辭가 될 수 없다. 즉 ‘新植民地’와 ‘國家獨占資本主義’는 상호모순을 일으키는 개념으로 결합될 수 없는 것이다.

한편 한국자본주의에 대한 主流經濟學의 시각이나 연구방법에도 많은 문제점이 있다. 新古典派經濟理論이 경제발전의 이론에 적용될 때 갖게 되는 가장 치명적인 한계점은 技術變動을 설명하지 않고 가정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경제발전이란 기본적으로 장기적인 시각에 의해 분석되어야 할 현상인데 長期物價와 長期產出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技術이론의 틀 밖에 두고 있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다 [Schmookler(1972, p. 70)].

前述한 바와 같이 新古典派의 입장이던 케인즈적인 입장이던 간에 主流經濟學者들은 한국경제의 成長에 대한 指標的인 차원에서의 성과분석 그리고 成長段階的 설명과 분석으로 일관하고 있다. 한국에서의 產業資本의 성립배경, 성립의 樣態 및 그 성격에 대한 史的·計量的 分析은 등한히 되어온 것이 사실이다. 설사 成長段階에 대한 분석이 더욱 명료해진다고 하더라도 主流經濟學者들 역시 한국자본주의가 언제 형성되었으며 그 시점은 發展段階 중 어떠한 段階에 해당되는지를 그리고 獨自的 形成要因이 무엇인지를 구명하지 않으면 안 된다.

安秉直 교수는 “이제 한국자본주의가 獨自的으로 발전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형성요인을

밝혀야 한다. 從屬理論에서처럼 주변부자본주의는 중심부자본주의에 의하여 형성되고 그것에 주변으로서 종속해 있다고 보지 않는 이상, 韓國資本主義는 그 독자적 형성요인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 점을 명확하게 밝히지 못한다면, 獨自의인 資本主義로서의 한국자본주의는 그 성립조차 말할 수 없다. 新植民地國家獨占資本主義처럼 단순히 ‘資本-賃勞動關係가 지배적이니까 자본주의다’라는 식의 형태론 내지는 유형론으로 타락하지 않으려면 말이다” [安秉直(1989)]라고 서술하고 있는데 성장단계의 분석에만 집착한 主流經濟學의 접근방법도 똑같은 오류에 빠질 위험이 있다.

로스토투流의 成長段階論者들이 비록 지수적 성장이 아닌 불규칙적 成長經路를 전제로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單線的인 成長樂觀主義에 입각해 있다. Rostow(1990)는 대다수의 低開發國들이 건전한 개발정책을 成案·推進하지 못하고 있는 가장 큰 장애요인은 그들의 政治指導者들이 경제적인 고려보다는 政治的인 고려에, 그리고 장기적인 이해보다는 단기적인 이해에 집착하기 때문이라고 결론짓고 있다. 그러나 그는 世界資本主義의 전망에 대한 언급에서는 各國間의 선의와 협동(goodwill and cooperation)에 의해 환경면에서의 급격한 재난을 방지하면서 高度大量消費의 段階가 전세계적으로 정착될 수 있다는 樂觀論을 전개하고 있다. 로스토투는 1933년 이후 도약을 달성한 나라들을 모아 제 4기 도약그룹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1930년대에 이미 도약시점을 통과한 아르헨티나, 브라질, 멕시코, 터키 등이 왜 아직 高度大量消費의 단계에 진입하지 못하고 있는지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로스토투는 기술적 성숙기를 당해국의 技術吸收能力(technological absorption capacity)이 연속적으로 증대되는 시기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대부분의 제 4기 도약 그룹 국가들이 결국 기술흡수능력상의 애로를 극복하지 못함에 따라 高度大量消費段階로의 進入이 좌절되거나 지연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실 冷戰의 종식, 社會主義經濟圈의 급속한 解體와 改革이 진행되는 와중에서 이러한 樂觀論은 더 큰 설득력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成長樂觀主義는 로스토투 자신이 지적한 經濟成長의 諸段階에 맞이하 수 밖에 없는 苦痛과 複雜性(pain and complexity)을 과소평가할 위험성이 있다. 경제발전사적으로 많은 선진국들이 과거에 跳躍期→技術的 成熟期→高度大量消費의 단계를 이행하였다고 하여 中進國·後進國들도 그러한 단계로 이행해 나갈 것이라는 설명은 Blaug(1980)의 지적대로 主流經濟學의 연구에 있어 거의 유일한 방법론으로 존재해온 科學的 說明의 假說-演繹模型(hypothetic-deductive model of scientific explanation)의 산물인 것이다.⁽¹⁰⁾ 역사적으로도 1930~40년대에 이미 跳躍期를 지나 成熟

(10) 假說-演繹模型의 방법론은 하나의 一般法則(universal law)으로부터 출발하여 연역법칙논리만

期에 진입한 것으로 보이던 南美的 主要國家들이 高度大量消費의 단계로 진입하는 데 실패한 경험을 反芻해 볼 때 한국자본주의도 單線的인 發展段階의 분석만으로는 그 실체를 파악할 수 없다고 본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볼 때 世界資本主義體制에 병합된 韓國資本主義에 대해 그 外部的·內部的인 성격을 규정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사고의 틀과 방법론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다. 필자는 “韓國資本主義는 선진자본주의와는 상이한 발전의 길을 따라 전개된 20세기 후반의 새로운 世界史的 現象이다. 따라서, 우리들 역사·사회과학도의 임무는 새로이 조성된 歷史的 現象을 새롭게 이론화하는 데 있으며, 새로운 술을 던 부대에 담을 일은 결코 아니다”라고 표현한 安秉直 교수와 같은 시각을 가지면서 이하에는 中進資本主義論에 입각하여 한국자본주의에 대한 實證的 평가를 시도하고자 한다.

3. 中進資本主義로서의 韓國經濟：實證的 評價

지금까지 韓國資本主義의 성격을 규명하는 데 있어 國家獨占資本主義論이나 經濟發展段階理論이 다같이 부정적하고 불충분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최근 安秉直 교수는 “중진자본주의로서의 한국경제”라는 題下의 논문을 통하여 한국경제를 中進資本主義로 규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安秉直(1989)]. 그는 同論文의 서두에서 최근에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調整理論(théorie de la régulation)의⁽¹¹⁾ 어프로치, 中村 교수의 中進資本主義論과 자신의 韓國近現代史에 관한 지식을 기초로, 한국자본주의 형성의 국내외적 조건과 그 發展動因을 고찰한다고 밝히고 있다.

으로 인련의 명제들을 도출하는 방법론이다. 이 방법론은 집대성한 헤켈(Hempel)과 오펜하이(Oppenheim)에 의하면 說明(prediction)이란 豫想(explanation)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論理的 推論過程을 필요로 하며 설명과 예상의 유일한 차이점은 前者가 사건 후에 위치하는 데 반해 後者는 사건 전에 위치하는 사실 뿐이라고 한다. 이를 흔히 설명과 예상간의 對稱性 名題(symmetry thesis)라고 하는데 과거의 통계자료를 가지고 회귀분석한 결과를 경제에측에 활용하는 방법 등이 가장 전형적인 이 방법론 적용사례라고 볼 수 있다. 이 방법론이 가장 눈부시게 적용될 수 있었던 사회과학분야가 新古典派理論을 중심으로한 經濟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방법론은 1960년대 이후 소위 反證主義(falsificationism)를 전개한 Popper-Kuhn-Lakatos 등에 의해 집중적인 공격을 받게 되었다 [裴鶴吉(1986)에서 재인용]. 이 方法論의 논쟁에 대한 보다 상세한 論議는 嚴永錫(1987) 참조.

- (11) 調整理論이라고도 번역되며 아글리에타(Aglietta), 리피에츠(Lipietz), 보이어(Boyer) 등 프랑스 신진맑스주의경제학자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이론체제로 개괄적인 소개서로는 Jessop (1990)이 있다. 이들은 맑스『資本論』의 전면적 재해석에서 출발하여 蓄積體系와 調節樣式을 중심개념으로 삼는 맑스주의경제학을 시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조정이론은 여태까지의 맑스주의 경제학 전통 속에서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취급되어온 부분인 現實資本主義經濟에 대한 경험적 탐구물 이론형성과정에 적극적으로 수용한다 [金均 (1991, pp. 3~4 참조)].

3.1. 中進資本主義論

中村哲 京都大學教授는 맑스歷史理論에 정통한 학자로서 明治維新史가 그의 연구의 본영역이다. 그는 近現代가 자본주의의 세기라는 世界史에 대한 인식 밑에서 東아시아史를 중심으로 世界近現代史의 歷史理論을 재구성하였다.⁽¹²⁾

그는 맑스 死後 100년을 기념하는 日本歷史科學協議會에서의 보고논문, “近代世界史像의 再檢討”에서 다음과 같이 中進資本主義論의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현대, 특히 1970년대 이후는 역사의 커다란 전환기에 접어들었으며, 종래의 맑스主義 歷史學의 理論的 틀에서는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가 차례차례로 일어나고 있다.……오늘날 맑스의 死後 百年을 맞이하여 우리들이 맑스로부터 배워야 할 것은 우선 지금까지의 맑스주의는 20세기 후반의 세계를 파악하는 데 실패했다, 적어도 큰 缺陷을 가지고 있다는 (19세기 중기에 맑스, 엥겔스가 그러했던 것같이) 것을 인정하고, 그 반성으로부터 출발해야 할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다. 그리고 既成의 이론으로는 파악할 수 없었던 現實로부터 출발하여 이론을 再構成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다.

“現實로부터 출발하여 이론을 再構成”해야 한다는 視角은 “現實資本主義經濟에 대한 경험적 탐구를 이론형성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수용한다”는 입장에서 출발하고 있는 조정이론의 시각과 일치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필자는 中村 교수가 맑스歷史觀을 재구성하여 日本의 資本主義諸段階를 해석하려는 시도에서 그의 中進資本主義에 대한 연구가 시작된 것이라고 판단한다. 그는 低開發國으로부터 중진국화하고 선진국화한 예는 세계에서는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한 질문에 답하면서 적어도 日本은 그러한 과정을 거쳤다고 주장한다 [中村哲 (1991, pp.119~120)]. 그는 幕末開港 이후 明治前期의 日本을 저개발국으로 해석하고 明治維新에 의한 통일국가의 성립후 1900년경에 중진자본주의화하였다고 보고 있다. 그는 日本이 1929년 공황 이후 대외적으로는 小帝國主義化, 대내적으로는 重化學工業化・軍事化・파쇼화의 과정을 거치며 未熟한 중진국으로부터 선진국으로의 이행을 시도하지만 패전에 의하여 좌절되었다고 본다. 그리고 그는 日本이 전후의 민주개혁에 의하여 美國의 정치・경제제도를 도입하고 소위 敗戰革命에 의해 國內經濟構造를 변화시키는 데 성공하여 1960년대 중엽에 선진자본주의국으로 轉化하였다고 논술하고 있다.⁽¹³⁾

中村 교수는 현재의 세계경제체제를 先進資本主義國, 中進資本主義國, 低開發國의 三重

(12) 中村哲(1991)의 譯者後記 참조.

(13) 中村哲(1991, p.58). 로스토우는 日本經濟의 跳躍時點을 1885년으로 보고 1905년경부터 1940년까지의 技術的 成熟期를 지나 1950년대 중반부터 高度大量消費段階에 진입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Rostow (1990, pp.446~447)].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中進資本主義는 대체로 기술적 성숙기와 상응하고 있다.

構造로 파악하며 英國을 제외한 모든 선진자본주의국들이 중진국의 지위를 경험한 것으로 파악한다.⁽¹⁴⁾ 先進資本主義國과 低開發國의 三重構造는 맑스가 이미 상정한 세계경제구조이므로 그의 ‘맑스歷史觀의 再構成’이 독자적인 이론으로 성립하려면 결국 중진자본주의가 독자성을 갖는 개념으로 설정되지 않으면 안된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中進資本主義國이 어떻게 규정될 수 있으며 歷史적으로 어떻게 파악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에 그는 논문의 반 이상을 할애하고 있는 것이다.

먼저 低開發國에 관한 논의에서 그는 저개발국의 압도적 다수가 독립후에도 植民地的 經濟構造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았다. 이들 국가는 아직도 1차산품수출에 의존하지만, 舊植民地經濟構造가 급격히 파괴되면서 인구의 都市流入과 농업총생산력의 지하로 1차산품 생산마저 정체되어 왔다고 본다. 즉 빈곤의 惡循環과 축적이 계속되고 있는 사회로 파악된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는 低開發國으로부터 中進資本主義國으로 된 것은 힘계로서는 저개발국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中村 교수는 中進資本主義國의 개념을 주로 先進資本主義國의 개념과 대비하여 정의하고 있는데 <表 1>은 논의의 편의를 위해 中進・先進의 특징을 요약한 것이다. 中進資本主義國을 對外的으로 규정하는 가장 큰 특징은 先進資本主義에 대해 從屬性과 競合性의 양면성을 갖는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한편 對內的인 규정의 관점에서는 先進資本主義國과는 달리 자본주의적 관계가 일단 지배적으로 형성되었지만 非資本主義部門이 널리 존재하며 貨金은 상대적으로는 低水準에 있지만 급속히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았다. 선진자본주의국의 경우 국내저축률이 경제상태에 있거나 오히려 저하되는 경향이 있는데 반하여 中進資本主義國의 저축률은 상승하는 추세를 갖는다. 특히 복잡한 계급구성으로 계층・계급간의 알력이 계속되고 노동자・농민계층이 아직 保守化되지 못한 상태에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와같이 先進, 中進, 低開發이 세계자본주의를 구성하는 基本的 類型이라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의문점을 제기할 수 있다. 첫째, 低開發國의 社會主義化는 어떠한 유형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가? 中村 교수는 이러한 물음에 대하여 현대의 저개발국이 資本主義的 中進國化와 社會主義化중의 하나를 택하게 되나 1960~70년대에는 소련을 비롯한 社會主義圈의 停滯化 때문에 前者가 우세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는 또한 세계자본주의

(14) 그는 中進資本主義國이 세계자본주의에 있어서의 위치와 국내경제구조에 의하여 규정된다고 말한다. 그는 세계자본주의가 後發資本主義國의 國內經濟構造에 본격적으로 規定的인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시점을 세계자본주의가 일단 확립된 19세기 중엽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19세기 중기에 이미 중진국화한 프랑스나 독일과 19세기 중기 이후 세계자본주의체제에 從屬的으로 편입되어 저개발화한 나라가 중진국화하는 경우와는 그 조건이나 국내경제구조에 상당히 큰 차이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中村哲(1991, pp. 55~56)].

〈表 1〉 資本主義國의 概念規定

	中進資本主義國	先進資本主義國
對外的 規定	(a) 자본재 생산부문·첨단산업부문 취약, 從屬的 國民經濟 (b) 貿易收支의 入超와 先進國에 對한 金融從屬 (c) 先進國에 對하여 경합·대립하는 측면 (d) 저개발국에 對해서는 工業製品을 수출하고 1차산품을 수입하며 小帝國主義化하는 경우도 있음	(a) 1次產品輸入, 資本財를 포함한 工業 제품 수출의 무역구조 (b) 金融的으로 支撐되어 있거나 資本輸出國 (c) 先進國型帝國主義 또는 非帝國主義國으로 構成됨
對內的 規定	(a) 자본주의적 관계가 일단 지배적으로 되고 國民經濟도 形成해 있으나, 비 자본주의부문이 널리 존재함 (b) 신진자본주의국에 비하여 低賃金이나 자본주의부문이 급속하게 발전하므로 賃金은 上昇傾向 (c) 높은 자본축적률 및 경제성장률을 갖고 있으나 勞動分配率은 낮음 (d) 복잡한 階級構成, 계층·계급간의 알력이 계속되고 勞動者·農民階層이 아직 보수화되지 못함	(a) 資本主義的 關係가 압도적으로 우세한 상태에 있음 (b) 高賃金, 國內資本分配率의 低下, 과잉자본의 形成 및 國內貯蓄率의 低下 또는 停滯 (c) 資本財生産部門과 尖端技術部門을 포함하는 自立性을 갖는 國民經濟 (d) 政治的 民主主義 形成, 노동자·農民階層이 保守化(體制內化) 됨.

資料：中村哲(1991).

체제의 내부에서 저개발국의 자연성장적인 발전코스는 資本主義的 中進國化이며, 그것에 대하여 ‘社會主義化는 自然成長코스’를 밑으로부터의 혁명에 의하여 절단하는 ‘革命的 코스’라고 정의한다.

두번째로 제기되는 의문은 中進資本主義論과 Wallerstein(1979)의 世界體制論 또는 로스투우流의 發展段階論과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이 점에 관하여 그는 세계체제론도 中核(core), 半周邊(semi-periphery), 周邊(periphery)의 三重構造를 설정하고 있으나 국내경제구조 즉 對內的 規定이 불충분하다고 평가한다. 新從屬理論 역시 低開發國을 對內的으로 규정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같으나 이들 나라에서 從屬的·偏倚的 경제구조의 형성만이 일반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舊經濟構造의 파괴나 종속경제의 형성 자체가 일면에서는 自立的 經濟形成의 기초조건을 필연적으로 만들어내는 면을 간과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마지막으로 그는 中進資本主義論도 일국사적 발전단계론을 극복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인정하지만, 역사를 生産力과 生産關係의 모순의 발전과정을 기초로 하여 파악하면 一國史的 發展段階論이 세계사 전체의 발전을 파악하는 유용한 틀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그는 로스투우流의 發展段階論은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모순의 발전과정’을 기초로 內部構造와 對

外的 規定의 분석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발전의 類型分析에만 집착하고 있다는 점과 궁극적으로 高度大量消費段階로의 이행을 너무 낙관하고 있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中村 교수는 中進資本主義國에 관한 역사적 고찰을 통하여 그 先例로서 (1) 19세기 후반기 : 미국,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 (2) 19세기말~20세기 전기 : 일본,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캐나다,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 러시아,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및 헝가리, (3) 1930년대 :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라틴아메리카中進國, (4) 1960~70년대 : 한국, 대만, 싱가포르 등 東아시아中進國을 들고 있다.

中村 교수는 그의 中進資本主義論의 형성과정에 있어 특히 韓國資本主義에 대한 인식이 커다란 배경으로 작용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당시(1983년)는 겨우 韓國資本主義가 세계의 주목을 모으기 시작한 때이며, 나도 한국 자본주의의 歷史的 性格을 규정하는 일이 현대의 세계인식에 있어서 重畧한 位置를 점한다고 생각하게 된 것이 이 보고의 하나의 계기로 되어 있다. 그와 같은 한국자본주의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이론화할 수 있는가, 그것은 그 때까지의 從屬理論이나 開發經濟論의 틀로부터는 어떻게 하여도 비어져 나오는 부분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리고 한국자본주의를 역사적으로 파악하는 시점이 필요한데, 그렇게 되면 일본의 明治維新 이후의 근대화과정과도 공통되는 면이 있다고 생각하게끔 되었다. 中進資本主義라고 하는 一般的이며 歷史的인 概念은 이와 같은 思考過程의 산물이다. 또 하나, 현대자본주의에 관한 이론을 어떻게 구축하면 좋을 것인가, 근대경제학의 입장에서로부터도 나에게 만족될 만한 理論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생각되었던 것이다. 나 자신은 맑스경제학의 입장에 서있으므로 맑스주의에 대한 批判이 중심으로 되어 있다.…… 이 두 가지의 문제, 現代資本主義의 이론과 現代韓國資本主義의 歷史的 把握이란 어떻게 통일적으로 이론화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문제는 나에게 아직 제대로 해결되어 있지 않은 문제이다 [中村哲(1991)의 序文].

中進資本主義論에 입각한 韓國資本主義의 성격규명은 前述한 바와 같이 安乘直 교수에 의해 전개되고 확장되었다. 安乘直 교수는 中村 교수의 中進資本主義論을 수용하면서 한국 자본주의의 성격을 보다 구체화하고 있다. 먼저 그는 한국에서의 資本主義는 국내적 계기에 의해서라기보다 국제적 계기에 의해서 전개되어 왔음을 강조하고 있다 [安乘直(1989, p. 23)]. 그는 식민지기에서는 日本資本에 의한 植民地資本主義가, 해방후 1950년대까지는 從屬資本主義가 추진되었다고 주장한다. 또한 한국경제가 선진국들처럼 自生的 資本主義로서 形成・發展되기 이전에 세계자본주의에 종속되었으며 이와 같은 對外的 規定이 한국과 같은 中進資本主義를 暎—스위지(Dobb-Sweezy)流의 자본주의 성립이론으로 파악할 수 없는 이유

라고 설명한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는 1960년대 이후 한국은 국제적·국내적 요인에 의해 産業資本의 流入을 경험하게 되는 바 이러한 資本은 商業資本이나 金融資本보다 현지자본주의의 발전을 촉진하는 경향이 있음을 지적한다. 그는 식민지하에서는 비록 현지자본주의가 어느 정도 발전한다고 하더라도 우세를 점하는 것은 불가능한 반면 從屬體制下에서는 비록 국가의 주권이 많은 면에서 제약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政府가 現地資本主義의 발전을 보호·육성하는 기능을 갖는다고 보았다.

新植民地國家獨占資本主義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현재의 한국자본주의를 新植民地地下의 매판자본이 추진하는 것으로 보아 한국자본주의의 獨自性を 인정하지 않는 데 반하여 安秉直 교수는 한국경제발전의 주역이 외국자본이 아닌 한국자본이라는 점에서 이를 인정하고 있다. 그는 한국경제가 제벌을 중심으로 발전함에 따라 獨占的 性格을 가지고 있지만, 처음부터 국제적 영향하에서 형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階級으로서의 기반이 튼튼하지 못하여 權威主義的 政治體制에 종속해 있다는 사실 때문에, 그리고 금융독점자본으로까지 성장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國家獨占資本의 단계라고 해석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마지막으로 그는 韓國資本主義가 그나마 독자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요인을 (1) 값싸고 풍부한 良質의 勞動力의 존재 (2) 後發性的 이익 및 (3) 권위주의적 정치체제에 의한 강력한 經濟開發政策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 그는 그러한 독자적 발전을 가능하게 하였던 國內的 條件으로 (1) 日本帝國主義에 의한 韓國傳統社會構造의 철저한 파괴 (2) 새로운 경제체제의 확립 및 (3) 近代的 階級的 출현을 지적하고 이러한 조건들이 植民地體制나 종속체제하에서 형성되었다고 본다.

中進資本主義에 대해서는 이미 다양한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비판의 주된 논지는 세계體制論이나 近代化理論 내지는 發展段階論과의 차이가 불명확하다는 것, 한국·대만 등 몇몇 나라에서 근년에 공업화가 추진되고 자본주의가 진전했다고 해서 중진자본주의국이라는 유형이 성립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 마지막으로 지개발국에서 중진국으로,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발전한 歷史的 先例를 찾기가 어렵다는 점 등이다.⁽¹⁵⁾ 국내의 국가독점자본주의론자의 입장에서도 ‘中進資本主義論’은 맑스歷史觀의 再構成이 아니라 異端으로 비쳐질 것이다.

그러나 필자의 견해로는 ‘中進資本主義論’이 한국자본주의의 성격을 분석하고 이해하는데 비록 유일한 틀은 아니지만 유용한 틀을 제공한다고 생각한다. 종래의 종속이론이나 국

(15) 中村哲(1991)에 수록되어 있는 日本歷史科學協議會大會에서의 보고에 대한 2차에 걸친 심포지엄에서 제기된 高橋彰 등의 批判 참조.

가독점자본주의론은 對外的 規定 또는 對內的 規定에만 집착한 나머지 동의반복적인 논의의 연속으로 검증가능한 가설을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이들 이론이 갖는 汎社會科學的 性格은 바로 이들 이론의 장점이기도 하지만 경제학으로 검증할 수 있는 범위를 逸脫하고 있다. 한편 開發經濟學的 분석 내지는 發展段階論的인 주류경제학의 분석은 中進資本主義가 갖는 對內外的 制約條件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선행시키지 않고 선진국으로의 회귀를 너무 單線的으로 가정하고 있다. 이러한 시각에서 판단할 때 ‘中進資本主義論’은 그 자체가 갖는 未完成理論으로서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한국자본주의를 분석할 수 있는 유용한 사고의 틀과 일련의 검증가능한 명제와 가설들을 제공해주고 있다고 본다.

3.2. 實證的 評價

한국자본주의가 中進資本主義로 규정될 수 있는가에 대한 실증적 평가는 中村哲(1991)을 따라 대내적 규정과 대외적 규정을 분리하여 검토해볼 수 있겠지만 이하에는 (1) 世界資本主義體制에의 편입정도 (2) 從屬性的의 漸減과 殘存 (3) 持續的의 成長과 선진국과의 경합 (4) 勞動市場의 構造變化 (5) 貯蓄率·生産性·所得分配構造의 변화로 나누어 고찰해보기로 한다.

3.2.1. 世界資本主義體制에의 編入程度

먼저 대외적 규정의 관점에서 中進資本主義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當該經濟가 世界資本主義體制에 편입되어 있는지를 검토하지 않으면 안된다. 즉 단지 周邊으로서 존재할 뿐인 低開發國과 구분되기 위해서는 비록 어느 정도의 從屬性을 가지면서도 世界資本主義體制에 어느 정도의 비중을 갖고 참여하고 있는지를 분석하여야 한다.

〈表 2〉는 이러한 의도에서 작성해본 進後 非共產圈의 世界貿易動向의 개관이다. 戰後貿易動向의 특징은 先進國間의 무역이 전체세계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2%(1953년)에서 56%(1988년)로 증가하였다는 것과 開發途上國의 對先進國輸出은 신흥공업국의 출현에도 불구하고 같은 기간 동안 26%에서 17%로 줄었다는 사실이다.

첫번째 사실은 產業內貿易(intra-industry trade)의 증대와 선진국내에서의 다국적기업의 활동이 증가한 결과로 해석된다. 두번째 사실은 1次產品에 대한 先進國需要의 漸減, 代替商品의 개발 등에 원인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결국 南北間의 무역면에서는 로스토우流의 成長段階理論家들이 상정하는 세계경제의 同質化(homogenization)경향은 기각되고 오히려 兩極化가 진전되었음을 시사해주고 있다. 世界貿易에서 차지하는 韓國貿易의 비중을 보면 1953년에는 0.1%미만으로 그야말로 ‘周邊中の 周邊’이었으나 1976년에는 0.9%, 1980년에는 1.8%를 접하게 된 半周邊으로서의 성장과 世界資本主義에의 본격적인 편입을 확인할

〈表 2〉 非共產圈의 世界貿易動向

〈1953년〉

(單位: 10억 달러, %)

原產地 \ 目的地	(1) 先進國	(2) 開發途上國	總 額
(1) 先進國	29(42)	16(23)	45 (65)
(2) 開發途上國	18(26)	6 (9)	24 (35)
總 額	47(68)	22(32)	69(100)

〈1976년〉

原產地 \ 目的地	(1) 先進國	(2) 開發途上國	韓 國	總 額
(1) 先進國	427 (50)	166 (20)	5.8(0.7)	594 (70)
(2) 開發途上國	185 (22)	68 (8)	2.1(0.2)	253 (30)
韓 國	6(0.7)	1.6(0.2)	—	7.6(0.9)
總 額	612 (72)	234 (28)	7.9(0.9)	847(100)

〈1988년〉

原產地 \ 目的地	(1) 先進國	(2) 開發途上國	韓 國	總 額
(1) 先進國	1,463 (56)	452 (17)	35.3(1.4)	1,915 (74)
(2) 開發途上國	448 (17)	232 (9)	10.1(0.4)	680 (26)
韓 國	45.5(1.8)	14(0.5)	—	59.5(2.3)
總 額	1,911 (74)	684 (26)	45.4(1.8)	2,595(100)

資料: 1953년은 Ethier(1983, p.36)의 Table 1.5, 1976년 및 1988년은 IMF(1983, 1989).

수 있다. 이와 같은 세계시장에의 편입을 교역액 및 1인당 수출액면에서 파악하면 韓國은 1970~89년 사이에 교역액면에서는 41位國에서 12位國으로, 1인당 수출액면에서는 105位國에서 37位國으로 올라갔다 [韓國銀行(1991)]. 이는 輸出主導型 經濟成長의 지표인 동시에 세계자본주의에의 편입을 확인해주는 또 하나의 지표인 것이다.

3.2.2. 從屬性의 漸減과 殘存性

한편 先進資本圈으로 진입하지 못한 中進資本國으로서는 對外的 規定에서의 從屬性을 완전히 탈피할 수는 없다. 사실 종속성이라는 말 자체는 相互依存性을 의미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극히 모호하고 상대적인 개념이다. 또한 從屬論議에서 보듯이 종속의 양태에 따라 貿易面에서의 從屬, 金融從屬, 技術從屬 등으로 다양한 종속이 정의될 수 있다.

〈表 3〉은 주로 貿易·技術面에서의 종속성과 그 추이를 가늠해보기 위해 요약해본 表이다. 日本으로부터의 輸入偏重과 美國에로의 輸出偏重도 加工貿易 및 標準化商品에 대한 日本으로부터의 중간재 수입, 美國에로의 수출집중의 결과인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한 가지

〈表 3〉 輸出入 및 技術導入에서의 美國・日本の 比重 (單位: %)

	輸 出		輸 入		技術導入(1962~89年 推計)			
	1970	1989	1970	1989	件 數		金 額	
					1962~76	1977~89	1962~76	1977~89
美 國	47.3	33.1	29.5	25.9	21.8	26.4	26.1	46.4
日 本	28.3	21.6	41.0	28.4	65.7	49.7	56.1	30.1
其 他	24.4	45.3	29.5	45.7	12.5	23.9	17.8	23.5
總 計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資料: 韓國銀行(各年度), 韓國産業技術振興協會(1990).

주목할 수 있는 것은 美國에의 수출의존도와 日本에의 수입의존도가 다같이 감소되고 其他地域에 대한 輸出依存度가 증대해 나가는 등 貿易面에서의 從屬性 弱화를 살펴볼 수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技術導入의 관점에서도 건수와 금액면에서 兩國의 비중이 1962~76년의 기간보다 1977~89년의 기간 동안 현저히 감소되고 있어 技術從屬度 역시 어느 정도 완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新興工業國의 工業製品輸出에서 점유하는 다국적기업의 점유비율을 분석한 Tharakan(1979)의 연구를 보더라도 한국의 비중(27.8%)은 싱가포르(90%), 멕시코(45%), 브라질(43%) 등에 비해 낮기 때문에 多國籍企業에 의한 從屬化를 크게 지적할 수는 없다고 본다. 또한 金融從屬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우리나라는 國策銀行의 支給保證 등을 통한 신디케이트자금이나 世界銀行, IMF 등을 통한 外資導入에 주력하였으므로 南美諸國에 비해 그 종속성이 극히 미약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한 公的 外債도 1987년 이후 國際收支의 黑字期間 동안 많이 감소되었으며 對輸出額外債서비스의 비율(debt service ratio)도 1970년의 19.5%에서 1988년에는 9.1%로 낮아지고 있음을 볼 때 금융종속은 크게 강조될 수 없을 것이다 [World Bank(1990, Table 24) 참조].

이상에 논의된 諸指標을 보면 한국경제의 對外從屬性은 감소하는 추세에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대외종속성이 완전히 제거되지 못하고 殘存하고 있다는 徵表도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다. 〈表 4〉는 이러한 인식을 염두에 두고 한국은행자료를 인용하여 우리나라 製造業의 수입의존도와 수입유발계수를 살펴본 것이다.

먼저 製造業投入中間財의 輸入依存度를 비교해보면 한국은 제조업평균 의존도가 1975~85년의 기간 동안 22.4%에서 21.7%로 거의 줄어들지 않고 있는 반면 日本은 10.5%에서 7.2%로 줄어들고 있다. 또한 가령 輸送機械工業의 경우 한국은 1985년 현재 17.8%의 수입의존도를 보이고 있으나 日本은 2.0%에 그치고 있다. 다음 輸入誘發係數를 보더라도 한국은 제조업평균이 0.38수준에 계속 머무르고 있는 데 반해 日本은 0.21에서 0.18로 절대적 수

〈表 4〉 製造業 投入中間財의 輸入依存度 및 輸入誘發係數 比較 (單位: %)

	韓 國			日 本		
	1975	1980	1985	1975	1980	1985
〈輸入依存度〉						
生活關聯產業	11.4	11.6	13.5	4.8	5.4	5.8
(纖維)	15.8	13.3	16.6	2.8	3.6	4.5
基礎素材產業	37.2	30.5	29.9	20.1	17.5	13.4
(化學)	22.0	19.0	22.4	3.7	4.0	4.1
(石油石炭製品)	62.9	60.3	68.3	75.7	75.7	56.7
(鐵鋼)	31.2	20.9	14.6	3.8	3.4	3.9
(金屬製品)	20.4	15.1	14.5	1.5	1.3	1.6
加工組立產業	27.2	22.1	21.9	2.6	2.4	2.5
(一般機械)	15.8	17.7	16.4	2.1	1.9	1.7
(電氣機器)	33.5	21.8	27.4	4.6	3.8	3.3
(輸送機械)	22.0	24.7	17.8	1.6	1.6	2.0
(精密機械)	44.5	28.5	23.1	4.5	3.9	3.9
製造業平均	22.4	20.6	21.7	10.5	9.3	7.2
〈輸入誘發係數〉						
製造業製品	0.39	0.38	0.38	0.21	0.21	0.18
生活關聯製品	0.23	0.23	0.25	0.18	0.19	0.19
基礎素材製品	0.42	0.40	0.40	0.50	0.44	0.35
加工組立製品	0.74	0.69	0.58	0.18	0.16	0.14
〈輸入誘發依存度〉						
消費	34.4	38.8	36.2	56.3	57.3	58.4
投資	38.9	31.6	28.4	29.1	29.3	27.0
輸出	26.7	29.6	35.4	14.6	13.4	14.6

資料: 韓國銀行(1991b)의 <表 4> 및 <表 6>.

준도 낮을 뿐 아니라 유발계수의 추세도 감소하고 있음을 식별할 수 있다. 투입중간재의 대부분이 技術集約製品이라고 볼 수 있는데, <表 4>를 통하여 우리는 우리나라의 製造業이 아직도 技術隘路를 완전히 극복하지 못하고 技術從屬性이 잔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2.3. 持續的 成長과 先進國과의 競合

다음에는 中進資本主義國으로서의 지속적인 성장과 그 결과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선진국과의 경합성을 평가해보기로 한다. 低開發國으로부터 中進資本主義國으로 이행하는 경우 나타나는 자본주의적 관계의 확산은 먼저 當該經濟가 後發工業化의 과정을 통해 지속적인 고도성장을 이룩하였는가에 의해 판별될 수 있다. 從屬論者들은 발전이 없는 성장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으나 成長이 없는 發展은 역시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다.

먼저 한국경제의 中進資本主義期(또는 로스토우가 말하는 技術的 成熟期)라고 볼 수 있는 1965~88년간의 경제성장지표를 World Bank의 자료들로부터 살펴보기로 하자. <表 5>에서

〈表 5〉經濟成長의 主要指標

	1人當 國內總生產		年平均物價上昇率		續工業部門平均成長率	
	1988年 (달러)	平均成長率 (1965~88)	1965~80	1980~88	1965~80	1980~88
低所得圈	320	3.1	8.8	8.9	8.8	8.7
低中所得圈	1,380	2.6	21.7	80.8	7.8	2.5
高中所得圈	3,240	2.3	18.9	45.0	4.7	3.7
(韓國)	(3,600)	(6.8)	(18.7)	(5.0)	(16.4)	(12.6)
先進市場經濟圈	17,080	2.3	7.9	4.9	3.2	1.9

資料 : World Bank (1990, pp.178~181).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1965~88년의 기간 동안 한국의 인평균 1인당 GNP성장률은 6.8%로 高中所得圈(upper-middle income group)의 평균(2.3%)을 훨씬 초과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인플레이의 收束이 필요한데, 한국의 경우 1965~80년의 기간에는 18.7%의 인평균인플레이션율을 기록함으로써 다른 高中所得圈의 국가들과 거의 같은 수준이었으나 1980~88년의 기간 동안에는 5.0%를 기록함으로써 餘他圈의 평균치(45.0%)보다 훨씬 낮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이외 같은 높은 경제성장률은 인평균성장률 12%가 넘는 광공업부문의 高度成長에 의해 주도되었음을 〈表 5〉를 통하여 쉽게 알 수 있다.

한편 後發工業化를 추진해온 한국은 같은 기간 동안 산업구조의 급격한 전환(transformation)을 경험하였다. 〈表 6〉은 국내총생산(GDP)의 産業別配分構造를 분석하고 있는데 先進市場經濟圈(industrial market economies)의 경우 광공업의 비중이 40%(1965년)에서 35%(1986년)로 감소한 데 반하여 高中所得圈은 37%에서 40%로 증가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한국의 경우도 이러한 패턴을 따라가고 있음을 볼 때 産業構造的인 관점에서 中進資本主義國으로서의 특징을 잘 나타내주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광공업중심의 급속한 後發工業化는 中進資本主義國을 先進資本主義國과 결합하게 만든다. 〈表 7〉은 曷琮和(1991)로부터 인용한 韓國과 日本의 輸出競合度指數

〈表 6〉 國內總生產의 産業別配分構造

(單位 : %)

	農 業		續 工 業		(製 造 業)		서 비 스	
	1965	1986	1965	1986	1965	1986	1965	1986
低所得圈	42	32	28	35	21	24	30	32
低中所得圈	30	22	25	30	15	17	43	46
高中所得圈	18	10	37	40	21	25	46	50
(韓國)	(38)	(11)	(25)	(43)	(18)	(32)	(37)	(46)
先進市場經濟圈	5	3	40	35	29	—	54	61

資料 : World Bank(1988, pp.226~227).

〈表 7〉韓國과 日本間的 輸出競合度指數¹⁾ 推移

SITC 分類 番號	商 品 名	OECD 市場			美國市場		
		1970	1980	1987	1970	1980	1987
5	化學物 및 關聯製品	22.60	68.98	69.30	0.00	40.53	54.40
6	材料別 製造製品	21.46	58.10	67.62	27.52	66.32	70.84
7	機械 및 運輸裝備	37.90	38.60	62.22	29.38	30.20	68.70
8	雜 製 品	38.01	25.57	25.74	41.31	28.00	28.29

資料：曹琮和(1991, p.51, 62).

註：1) 輸出競合度指數(Export Similarity Index)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s(ab, c) = (\sum \text{Min} [X_i(ac), X_i(bc)]) \times 100$$

$s(ab, c)$ = a國과 b國 사이의 c시장에서의 輸出競合度指數

$X_i(ac)$ = a國의 對 c國輸出에서 商品 i가 차지하는 비중

$X_i(bc)$ = b國의 對 c國輸出에서 商品 i가 차지하는 비중

만약에 c國市場에서 a國과 b國의 상품별 수출구조가 완전히 일치한다면 指數는 100이 되고
전혀 다르다면 0이 된다. 따라서 그 값이 100에 가까워질수록 두 나라의 輸出構造가 비슷
하여 경쟁적임을 나타낸다.

(export similarity index)의 추이이다. 雜製品을 제외하고는 韓國製品의 日本製品對比 輸出
競合도가 OECD 및 美國市場에서 전부 上昇趨勢에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한 가지 유의해야 할 것은 中進資本主義國의 선진자본주의국에 대한 경합성은 무한정으
로 提高되는 것이 아니라 對內的으로 賃金上昇·生産性鈍化, 對外的으로는 後發開發途上國
의 추격·先進資本主義國과의 무역마찰 등에 의해 점차 消盡된다는 것이다. 〈表 8〉은 이러

〈表 8〉主要業種別 RCA指數¹⁾ 推移 國際比較

	織 維		電 子		鐵 鋼	
	1980	1988	1980	1988	1980	1988
韓 國	636.5	354.2	212.8	239.3	256.5	135.3
日 本	93.6	39.7	286.8	244.2	324.2	155.8
臺 灣	471.9	232.9	276.3	194.2	97.2	94.9
ASEAN	65.1	140.2	64.0	130.2 ²⁾	—	—

資料：韓國銀行調查第1部(1991).

註：1) 顯示比較優位指數(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Index: RCA)는 다음과 같이 정의되
며 100을 초과할 경우 특정국의 당해상품이 여타 상품에 비해 상대적인 比較優位를 갖는
것으로 판단한다.

$$RCA(i, j) = \left(\frac{X_{ij} / X_{wj}}{X_i / X_w} \right) \times 100$$

X_{ij} : i國의 j商品(産業) 輸出額

X_{wj} : 世界의 j商品(産業) 輸出額

X_i : i國의 總輸出額

X_w : 世界의 總輸出額

2) 1987년.

한 경향을 단적으로 나타내주는 연구결과이다. 우리나라의 RCA지수(顯示比較優位指數)를 주요경쟁국가와 대비해본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제품이 日本製品에 비해 누렸던 상대적인 비교우위가 激減하는 있는 반면 ASEAN諸國의 比較優位가 급속히 증대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한국경제는 지속적 성장의 결과 궁극적으로 선진국과 경합할 수밖에 없는 中進資本主義國으로서의 특성을 잘 나타내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3.2.4. 勞動市場의 構造變化

中進資本主義論은 또한 중진국이 급격한 勞動市場의 구조변화를 경험하게 된다고 보았다. 저개발국으로부터 중진자본주의국으로 전환하려면 농업으로부터 한계생산성이 높은 製造業에로의 雇傭移動이 불가피해진다. 총고용인구에서 차지하는 農業部門雇傭의 비율을 보면 日本은 1965년의 22.8%에서 1988년에는 7.2%로 하락하였고 韓國은 같은 기간 동안 55.7%에서 20.7%로의 下落을 경험하였다.

그리고 농업인구의 移動은 궁극적으로 剩餘勞動의 消盡을 초래하게 되고 當該經濟는 소위 Lewis(1954)의 轉換點(turning point)을 통과하게 된다. Minami(1973)에 의하면 日本經濟는 1960년에, Bai(1982, 1985)에 의하면 韓國經濟는 1975년에 전환점을 맞이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와 같은 轉換點의 시점을 Rostow(1990)가 제시하고 있는 成長段階와 中村哲(1991)의 段階區分과 대비해본 것을 <表 9>에 요약하여 보았다.

먼저 Minami(1973)의 분석결과가 타당하면 Rostow(1990)의 日本經濟에 대한 高度大量消費段階의 進入時點(1955년)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되며 中村哲(1991)의 先進資本主義에의 進入時點(1965년)과도 합치되지 않는다. 왜냐 하면 日本經濟가 1960년에 전환점을 맞은 후 5년이 경과한 후에 先進資本主義로 진입하였다는 것은 별로 설득력이 없는 설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필자는 1960년의 日本의 農業部門雇傭比率(30.0%)을 볼 때 日本經濟의 전환점은 Minami(1973)의 추계시점보다 훨씬 이전이 아니었을까 하고 추측해본다.

中村哲(1991)에 의하면 中進資本主義國은 勞動市場에서 급격한 구조변화를 경험하게 된다고 한다. 그 중에서도 實質賃金の 상승, 평균근로시간의 감축 및 노동소득분배율의 증대가 지적되었다. <表 10>에 제시된 것처럼 日本의 實質賃金指數는 지난 10년 동안 약 14.7%가 증가한 데 반해 우리나라의 지수는 거의 두 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그러나 절대적인 賃金水準은 아직도 일본의 1/4 수준밖에 되지 않으며 주당평균근로시간도 훨씬 높은 상태이다. 勞動所得分配率 역시 1960년의 41.0%수준에서 1988년에는 54.2%의 수준으로 증대되었으나 日本의 수준(67.7%)에는 훨씬 미달되고 있다.

中進資本主義論은 또한 中進國이 勞使問題를 심각하게 경험하며 勞動組合이 아직 保守化

〈表 9〉韓國과 日本의 發展段階와 轉換點 比較

	日 本	韓 國
1. 로스토우의 諸段階 (1) 跳躍의 準備段階 (2) 跳躍期 (3) 技術的 成熟段階 (4) 高度大量消費段階	1985年 이전 1885~1905 1905~1940 1955~현재	1962年 이전 1962~1965 1965~현재
2. 中村哲의 資本主義諸段階 (1) 低開發國 (2) 中進資本主義國 (3) 先進資本主義國	1890年 이전 1890~1965 1965~현재	1960年 이전 1965~현재
3. 무이스의 轉換點 ¹⁾ (農業部門의 雇傭比率)	1960 (30.0%)	1975 (45.9%)

資料 : Rostow(1990), 中村哲(1991), Minami(1973) 및 Bai(1982).

註 : 1) 日本은 Minami(1973), 韓國은 Bai(1982)에 의함.

〈表 10〉韓·日間 勞動市場關聯指標의 比較

	韓 國			日 本		
	1970	1980	1990	1970	1980	1990
名目賃金指數	10.1	100.0	364.8	28.7	100.0	140.6
實質賃金指數	45.6	100.0	198.7	68.0	100.0	114.7
製造業時間當賃金(美달러換算)	0.19	0.96	3.81	1.07	6.76	14.83
製造業周當平均勤勞時間	53.4	53.1	50.7 ¹⁾	43.3	41.2	41.4 ¹⁾
勞動所得分配率	41.0	51.9	54.2 ²⁾	54.0	66.8	67.7 ²⁾
全產業勞動生產性(指數)	42.3	100.0	322.6	51.4	100.0	157.6 ¹⁾
(製造業)	(39.9)	(100.0)	(342.5)	(50.8)	(100.0)	(158.1)
産業災害度數率	15.5	11.1	7.5	9.2	3.6	2.1
産業災害強度率	3.2	2.6	2.2	0.9	0.3	0.2
勞動組合員推定組織率 ³⁾	16.1	16.8	18.3	35.4	30.8	25.2

資料 : 裴茂基(1991), 韓國銀行(1991a, p. 64), 日本總務省統計局(1987, p. 46).

註 : 1) 1989년.

2) 1988년.

3) 組合員數를 非農家被雇傭者數(상시고용과 일시고용의 합계)로 나누고 100을 곱하여 산출.

되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우리나라 産業災害의 度數率이나 強度率을 볼 때 日本보다 아직 훨씬 높은 수준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1986~89년간 노동조합의 수가 크게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추정노동조합원조직률은 日本에 훨씬 미달되고 있다. 이와 같이 勞動市場의 諸指標들도 한국경제의 中進資本主義의 特性을 잘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3.2.5. 貯蓄率・生産性・所得分配構造의 變化

마지막으로 中進資本主義國이 갖는 여타의 많은 특성 가운데에서 貯蓄率, 生産性, 所得分配構造의 變化를 살펴보기로 하자.

중진자본주의론에 따르면 中進國은 貯蓄率의 上昇을 경험하게 되며 先進國이 되면 貯蓄率이 감소하거나 停滯된다고 한다. <表 11>에 제시된 내로 우리나라의 저축률은 1975년의 18.2%에서 1985년에는 29.1%의 수준으로 상승하였으나 같은 기간 동안 영국을 제외한 선진국들의 저축률은 감소하였거나 停滯狀態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말레이시아는 상승을 경험한 반면 브라질은 하락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음에는 연평균생산성증가율을 통하여 中進資本主義國의 特性을 확인하여 보았다. 먼저 Nadiri(1972)에 의하면 開發途上國에서는 總要素生産性의 증가가 산출증가를 설명하는 비중이 작다고 하였다. 우리나라의 총요소생산성증가율(2.4%)이 같은 기간(1960~73년)동안의 實質產出增加率(9.0%)에 기여한 정도는 27%밖에 되지 않지만 미국과 日本은 30% 및 41%로 추계된다[表鶴吉・權浩寧(1991, p. 176)]. 그리고 中進資本主義國은 초기에 잉여노동의 급속한 흡수를 경험하게 되므로 노동생산성의 증가율은 선진국에 비해 떨어지기 마련이다.

마지막으로 소득분포관련지수 역시 中進資本主義國의 特性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中進資本主義論은 中進國의 초기단계에서 소득분포구조가 악화되다가 先進國의 단계에 들어가면 改善된다는 Kuznets(1979)의 가설과 같은 가설을 제시하고 있다. 韓國은 말레이시아, 브라질 등보다는 양호한 소득분배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계되지만 日本보다는 훨씬 못

<表 11> 主要國家의 貯蓄率・生産性・所得分配 比較

國 家 名	貯蓄率(%)		年平均生産性 增加率(%) ²⁾ (1960~73년)		所得分布指數 ¹⁾		
	1975년	1985년	總要素 生産性	勞 動 生産性	推計 年度	5分位 (%)	지니係數
韓 國	18.2	29.1	2.4	2.9	1988	42.24	0.335
말 레 이 지 아	21.3	27.5	—	—	1973	55.10	0.497
브 라 질	21.8	18.9	—	—	1972	66.60	0.620
日 本	32.4	31.7	4.5	8.7	1988	30.62	0.268
西 獨	21.3	22.3	2.8	6.2	1981	46.90	0.414
英 國	15.3	19.1	2.1	4.5	1977	42.60	0.372
美 國	18.0	15.8	1.3	2.9	1983	42.70	—

資料 : 韓國銀行(1991), 表鶴吉・權浩寧(1991) 및 Christensen, Cummings and Jorgenson(1980)

註 : 1) 貯蓄率 및 所得分布指數는 韓國銀行(1991)에서 인용.

2) 年平均生産性增加率중 한국은 表鶴吉・權浩寧(1991)에서 기타 국가는 Christensen, Cummings and Jorgenson(1980)에서 인용.

한 분배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계된다. 두 사회가 갖는 社會同質性을 감안할 때 우리는 일본을 목표로 所得分配構造의 개선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우리는 한국경제가 中進資本主義로서의 諸條件을 충족시키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4. 韓國資本主義의 展望과 課題

Klein(1986)과 Rostow(1986)는 다같이 한국경제가 2000년에 이르러서는 선진국의 대열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한 바 있다. 그러나 勞動生産性의 國際比較를 시도한 최근의 연구들을 보면 우리나라의 勞動生産性이 선진국수준에 근접해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도 현격한 격차가 존재한다고 분석되고 있다. 가령 Summers and Heston(1984)에 의하면 한국의 1인당 실질산출액이 1954년에는 미국의 10% 수준에 불과하였으나 1979년에 이르러서는 25%의 수준에 도달하는 것으로 추계하였다. Pilat(1991) 역시 우리나라의 製造業勞動生産性이 1967년에는 미국의 6.4% 수준에 불과하였으나 1987년에 이르러서는 26.3%의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추계하고 있다. 이와 같은 추계결과는 우리나라와 선진국간에는 生産性面에서 아직도 현격한 격차가 존재한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 民間部門의 總要素生産性은 1960~73년의 기간 동안 연평균 4.37%의 속도로 증가하다가 1974~89년의 기간 동안에는 연평균 2.25%의 증가에 그치고 있어 重要소생산성의 현격한 減速을 경험하고 있다 [表鶴吉·權喆寧(1991, p. 173)]. 이와 같은 總要素生産性의 減速은 한국경제의 선진국진입에의 전망을 불투명하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중의 하나라고 생각된다.

필자의 최근 추계 [Pyo(1991b)]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人的資本/物的資本의 비율은 미국과 같이 대체로 상향추세에 있었으나 1977년 이후의 급격한 物的投資의 증가에 人的投資가 따라가지 못하여 0.83 수준에 머무르고 있고 이는 미국의 1.58 수준에 훨씬 미달하고 있다. 한편 人的資本과 物的資本을 합한 國富總額을 GNP로 나눈 國富/GNP의 비율도 한국은 4.74(1953년)에서 8.44(1985년)로 상향추세에 있으나 미국은 6.50(1929년), 6.51(1969년)의 수준에 거의 安定化되어 있다. 이와 같은 國富關聯指標들은 한국경제가 先進國에 進入하기까지는 아직도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해주고 있는 것이다.

Rostow(1990)는 日本을 비롯한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跳躍時點 이후 평균 60년이 경과한 시점에서야 高度大量消費段階로 진입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跳躍時點을 1965

년으로 잡더라도 우리는 이제 겨우 25년을 경과한 시점에 있을 뿐이다. 아무리 壓縮成長이 불가피하였다고 하더라도 너무 早熟한 先進國에의 進入은 得보다 많가 더 클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韓國經濟는 이제 생산가능곡선의 안쪽에서 곡선상으로까지 'shift-out'하는 성장단계는 이미 지났으며, 科學技術의 증진을 통한 생산가능곡선의 확장과 資源配分의 效率極大化를 통한 생산곡선상의 변동을 동시에 도모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¹⁶⁾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中進資本主義國家로서 다음의 과제들을 수행해나가야 할 것이다.

4.1. 國民資本主義의 指向

國家獨占資本主義는 資本家階級의 도구가 된 國家가 獨占資本과 결합한 자본주의의 이후 단계라고 정의되었다. 이제 東歐·소련의 사회주의경제체제가 사실상 와해된 시점에서 資本主義·社會主義의 체제에 대한 선택의 논쟁은 구의미해지고 말았다. 그러나 어떠한 資本主義를 지향하고 만들어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아직도 우리 모두의 숙제로 남아있는 것이다.

오랜 기간 동안 유교문화권에 남아서 社會의 同質性을 유지하려고 애써온 우리 사회는 國家가 자본가계급의 도구로 전락할 때까지 참을 수 있는 社會的 忍耐力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국 국가는 獨占資本의 확장을 가능한 한 제한하면서,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民間部門이 자본주의의 生命력을 잃지 않도록 유도해야 하는 二重役割을 수행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면 韓國資本主義는 美國式資本主義보다는 日本이나 西獨이 지향한 產業民主主義에 입각한 자본주의를 지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도구화되지 않은 國家가 產業資本과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 보완·견제하는 체제를 國民資本主義라고 정의한다면 이를 지향하는 것이 우리들의 중심과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4.2. 社會同質性과 成長潛在力の 提高

從屬—停滯의 假說(dependency-stagnation hypothesis)에 대한 필자의 검증결과 [Pyo(1986)]에 의하면 經濟成長初期의 所得分配構造가 보다 바람직한 나라일수록 그 이후의 經濟成長戰略이 성공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분배에 대한 논의는 'zero-sum game'이기 때문에 악화된 소득분배구조를 넘겨받은 나라는 끊임없는 소모전을 치르게 될 뿐이기 때

(16) 生産可能曲線의 안쪽에서 곡선상으로 움직이는 것은 生産性理論에서의 'catch-up stage'에, 생산가능곡선상에서 보다 효율적인 자원배분점으로 이동하는 것은 'embodiment stage'에 상응하는 개념으로 해석할 수 있다. 趙淳(1988) 교수가 표현한 外延의 成長段階(extensive growth stage)와 內延의 成長段階(intensive growth stage)도 대체로 이에 상응하는 개념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문이다.

최근 우리경제에서도 不動產價格 昂騰 등으로 자산소득을 포함하는 전체 소득의 분배구조가 점차 惡化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추세하에서는 우리가 가진 최고의 자산인 社會同質性이 유지되기 어렵게 되고 'zero-sum game'으로 성장잠재력은 소진되기 마련이다.

정부는 시기상조의 후생정책을 낱발함으로써 형식적인 社會同質性을 유지할 것이 아니라 世代間所得分配의 개선을 도모하는 보다 중·장기적인 조치를 강구해야 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公共教育의 확충 등이 가장 시급하게 요구되는 대책이라고 판단된다.

4.3. 政治民主化와 效率의 資源配分

政治民主化의 경제적 의의는 資源이 效率的인 부문으로 再分配될 수 있게 하는 메커니즘을 보장한다는 데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政治民主化가 지연되는 개발도상국에서 우리는 흔히 보호무역조치나 외환규제조치 또는 국내 商品 및 要素市場에서의 과도한 政府介入을 발견하게 된다. 이와 같은 규제는 地代(rent)를 창출하게 되고 지대는 자본가 및 그 一家에게 귀속되는 것이 개발도상국들의 현실이다.

필자는 拙稿 [Pyo(1991a)]에서 요소의 部門特定模型(factor specificity model)에 입각하여 1985~89년간 한국경제가 地代追求型經濟(rent-seeking economy)化되었음을 설명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Jones(1971)의 모형을 원용하여 交易財(제조업)부문에는 기계·장비 등의 자본이, 非交易財(서비스)부문에는 건물·토지 등의 資本이 部門特定的이라고 보았고 노동은 부문간 이동이 완전히 자유롭다고 가정되었다. 이러한 가정하에서 1986년 이후 진행된 油價下落·원貨切上·임금인상 등에 의한 비교역제의 상대가격 상승, 즉 일종의 교역조건 충격은 아래와 같은 제화·요소가격간의 不等關係인 확장효과(magnification effect)를 창출하게 되었다.⁽¹⁷⁾

土地·建物價格	서비스價格상	賃金상승률	製造業製品가격	機械·裝備의
상승률(56.8%)	승률(20.6%)	(16.8%)	상승률(9.7%)	수익률(7.0%)

지난 수 년간의 不動產價格 上昇은 政府의 아파트가격 규제에 의한 超過需要와 위에 설명한 가격의 확장효과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판단된다.

결국 政治民主化 없이 경제의 先進化가 불가능한 이유도 地代追求의 관행이 청산되지 않는 한 資源의 효율적인 配分이 저지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진정한 의미에서 한국자본주의가 앞에 정의한 國民資本主義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수십년에 걸친 발전에 따른 혼돈과 苦痛을 감내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더구나 이제 南北韓이 UN에 同時

(17) 괄호 안의 숫자는 1985~89년 기간 동안의 필자의 추계치이다 [Pyo(1991b, p.52) 참조].

加入하고 어떠한 형태로든지 통일에의 준비를 시작해야하는 시점에서 한국경제의 資本主義的 근거를 확고히 다지는 일이 先行되어야 할 것이다. 中進資本主義가 겪어야 할 수 십년 동안의 政治·社會的 準備過程을 생략한 채 早熟한 선진국에의 進入만을 시도하는 경우, 생산구조와 소비구조의 괴리가 초래되어 국민경제가 통제력을 상실한다는 것은 바로 1940년대 이후 南美國의 경험이 우리에게 시사해주고 있는 것이다. 韓國의 자본주의도 中進資本主義가 겪어야 할 苦痛과 혼돈을 생략한 채 선진자본주의로 전환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정부도 선진국에의 조급한 기대와 환상을 확산시키는 것보다는 中進資本主義로서의 문제를 부각시키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데 정책의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서울대학교 國際經濟學科 教授
151-742 서울 관악구 신림동
전화 : (02)880-6395
팩시 : (02)888-4454

參 考 文 獻

- 具本湖·李奎億 編(1991) : 『韓國經濟의 歷史的 照明』, 韓國開發研究院.
- 金 均(1991) : “技術革新과 社會的 葛藤”, 서울대학교 經濟研究所 週例세미나 발표논문.
- 金大煥(1986) : 『資本主義의 理解』, 比峰出版社.
- 金秀行(1991) : 『政治經濟學에세이』, 새날.
- 大韓商工會議所(1990) : 『韓國資本主義의 現狀과 課題』.
- 朴相燮(1985) : 『資本主義國家論』, 한울.
- 朴玄採(1985) : 『韓國資本主義의 展開의 諸段階와 그 構造의 特徵』, 邊衡尹 外, 『韓國社會의 再認識』, 한울.
- 박현채·조희연 편(1989) : 『韓國社會構成體論爭(1)』, 죽산.
- 裴茂基(1991) : 『韓國의 勞使關係와 雇傭』, 經文社.
- 邊衡尹(1990) : “韓國經濟發展의 展開過程”, 서울대학교 經濟研究所 『經濟論集』 29. 2.
- 邊衡尹 外(1985) : 『韓國社會의 再認識(1)』, 한울.
- 安秉直(1989) : “中進資本主義로서의 韓國經濟”, 『사상문에운동』 겨울號, 풀빛.
- 嚴永錫(1987) : “科學과 經濟學의 方法論的 考察”, 서울대학교 經濟研究所 第13回 經濟學심포지움 發表論文.

- 윤소영(1988)：“80년대 韓國經濟學계의 研究動向과 新植民地國家獨占資本主義論”，박헌채·조희연 편, 『韓國社會構成體論爭(Ⅰ)』.
- 李大根(1985)：“韓國資本主義의 性格에 관하여——國家獨占資本主義論에 붙여”，『創作과 批評』 57號.
- 林鍾哲(1990)：“韓國資本主義發展에 관한 研究”，서울대학교 經濟研究所 『經濟論集』 29. 4.
- 林玄鎭(1988)：『現代韓國과 從屬理論』, 서울대학교 출판부.
- 정운영(1987)：『國家獨占資本主義理論研究 I~IV』, 돌베개.
- 趙 淳(1988)：『韓國經濟發展四十年——그 特性和 問題點』, 서울대학교 經濟研究所 『經濟論集』 27. 4.
- _____ (1991)：“壓縮成長의 始發과 開發戰略의 定着：1960年代”，具本湖·李奎億 編, 『韓國經濟의 歷史的 照明』, 韓國開發研究院.
- 曹琮和(1991)：『韓國·臺灣·日本의 換率變動과 輸出競爭關係分析』, 對外經濟政策研究院 政策研究 91-09.
- 中村哲(1991)：『世界資本主義와 移行的 理論』, 安秉直(譯), 比峰出版社.
- 表鶴吉(1986)：“經濟開放論議의 理論的 背景和 方法論에 관한 小考”，서울대학교 社會科學研究所 『社會科學과 政策研究』 8. 1.
- _____ (1988)：“社會主義國家의 經濟從屬”，서울대학교 社會科學研究所 『社會科學과 政策研究』 10. 1.
- 表鶴吉·權皓寧(1991)：“우리나라 民間部門의 實質要素投入 및 要素生產性推計(1960~89년)”，서울대학교 經濟研究所 『經濟論集』 30. 2.
- 韓國產業技術振興協會(1990)：『1989年度 技術導入年次報告』.
- 韓國銀行(1991a)：『세계 속의 韓國經濟』.
- _____ (1991b)：“韓日產業構造比較分析”，『調查統計月報』 2月號.
- _____ (各年度)：『經濟統計年報』.
- 韓國銀行調查第1部(1991)：『最近主要業種別輸出動向 및 國際競爭力 實態分析』, 조사연구 자료 91-8.
- 溝口敏行·梅村又次(1988)：『舊日本植民地經濟統計：推計と分析』, 東洋經濟新報社.
- 大川一司·條原三大平·梅村又次 編著(1974)：『長期經濟統計：推計と分析』, 東洋經濟新報社.
- 日本總務省統計局(1987)：『日本の統計(昭和 62年)』.

- Aghevli, B., and J. Marquez-Ruarte(1985): "A Case of Successful Adjustment: Korea's Experience during 1980~1984," Occasional Paper No. 39, Washington D.C., International Monetary Fund.
- Amin, S. (1976): *Unequal Development*, New York, Monthly Review Press.
- Amsden, A.H. (1989): *Asia's Next Giant: South Korea and Late Industrialization*, Oxford University Press Inc.
- _____ (1982): "The Turning Point in the Korean Economy," *Developing Economics*, Tokyo.
- Bai, Moo-Ki(1985): "A Comparison of Turning Points in the Economies of Korea and Japan," *Social Science and Policy Research*, 7. 1, The Institution of Social Sciences, Seoul National University.
- Blaug, M. (1980): *The Methodology of Econom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arr, E.H. (1941): *The Future of Nations: Independence or Interdependence*, London, Kegan Paul, Trench, Trubner and Co. Ltd.
- Cardoso, F.H. (1973): "Associated-Dependent Development: Theoretical and Political Implications," in A. Stepan(ed.), *Authoritarian Brazil*,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Christensen L.R., D. Cummings, and D.W. Jorgenson(1980): "Economic Growth 1947~1973: An International Comparison," in J.W. Kendrick and B.N. Vaccara(eds.), *New Developments in Productivity Measurement and Analysis*,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Collins S.M. (1990): "Lessons from Korean Economic Growth," *American Economic Review*, 80. 2.
- Dorfman, R. (1991): "Review Article: Economic Development from the Beginning to Rostow,"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29. 2.
- Duvall, R.D. (1978): "Dependence and Dependencia Theory: Notes toward Precision of Concept and Argument," *International Organization*, 32. 1.
- Ethier, W. (1983): *Modern International Economics*, New York, W.W. Norton and Co.
- Evans, P. (1979): *Dependent Development: The Alliances of Multinational State and Local Capital in Brazil*,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Frank, A.G. (1966): "The Development of Underdevelopment," *Monthly Review*, 18. 4.
- Hamilton, C. (1983): "Capitalist Industrialization in the Four Little Tigers of East Asia," *Journal of Contemporary Asia*, 13. 1.
- Hong, W.T., and Y.C. Park(1986): "Financing Export-Oriented Growth in Korea," in A. Tan, and B. Kapur (eds.), *Pacific Growth and Financial Interdependence*, Sydney, Allen and Unwin.
- IMF(1983): *Direction of Foreign Trade Statistics Yearbook 1976~82*, Washington D.C.
- _____ (1989): *Direction of Foreign Trade Statistics Yearbook 1982~89*, Washington D.C.
- Jessop, R.T. (1977): "Recent Theories of the Capitalist State," *Cambridge Journal of Economics*, 1. 4.
- _____ (1982): *The Capitalist State*,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 Jones R.J. (1971): "A Three Factor Model in Theory, Trade and History," in J. Bhagwati et al. (eds.), *Trade, Balance of Payments, and Growth*, Amsterdam, Holland.
- Klein, L.R. (1986): "Foreword," in L.J. Lau (ed.), *Models of Development: A Comparative Study of Economic Growth in South Korea and Taiwan*, San Francisco, Institute for Contemporary Studies.
- Krueger, A.O. (1990): "Asian Trade and Growth Lessons", *American Economic Review*, 80. 2.
- Kuznets, S. (1979): *Growth, Population and Income Distribution: Selected Essays*, New York, W.W. Norton.
- Lewis, W.A. (1954): "Economic Development with Unlimited Supplies of Labour," *Manchester School of Economics and Social Studies*, 22.
- Meier, G.M., and D. Seers eds. (1984): *Pioneers in Development*,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Minami, R. (1973): *The Turning Point in Economic Development: Japan's Experience*, Economic Research Series No. 14, Institute of Economic Research, Hitotsubashi University, Tokyo, Kinokuniya Co.
- Nadiri, M.I. (1972): "International Studies of Factor Input and Total Factor Productivity: A Brief Survey," *Review of Income and Wealth*.
- Park, Y.C. (1990): "Development Lessons from Asia: The Role of Government in South Korea and Taiwan," *American Economic Review*, 80. 2.
- Pilat, D. (1991): "Productivity Growth in South Korean Manufacturing: A Comparative Perspective," mimeograph.
- Pyo, H.K. (1987): "A Cross-National Test on the Dependency-Stagnation Hypothesis," in Kyong-Dong Kim (ed.), *Dependency Issues in Korean Development: Comparative Perspectives*,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 _____ (1991a): "Combined Terms-of-Trade Shocks and Structural Adjustments in a Rent-Seeking Economy: Korea, 1985~1989," in *Academic Studies Series*, Joint Korea-US Academic Symposium on Impact of Recent Economic Developments on U.S.-Korean Relations and the Pacific Basin, Korea Economic Institute of America, Washington D.C.
- _____ (1991b): "A Synthetic Estimate of the National Wealth of Korea, 1953~1989," mimeograph.
- Rostow, W.W. (1960): *The Stage of Economic Growth*,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_____ (1986): "Korea and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1960~2000," Paper presented at the Federation of Korean Industries.
- _____ (1990): *Theorists of Economic Growth from David Hume to the Present*, Oxford University Press, New York.
- Santos, T. Dos (1970): "The Structure of Dependence," *American Economic Review*, 60. 2.
- Schmookler, J. (1972): *Patents, Invention and Economic Change*, edited by Z. Griliches and

- L. Hurwicz,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Srinivasan, T.N. (1990): "External Sector in Development: China and India, 1950~89," *American Economic Review*, 80. 2.
- Summers, R., and A. Heston (1984): "A New Set of International Comparisons of Real Product and Price Level Estimates for 130 Countries, 1950~1985," *Review of Income and Wealth*, 34. 1.
- Tharakan, P.K.M. (1979): *The International Division of Labour and Multinational Companies*, Saxon House.
- Wirth, M. (1977): "Towards a Critique of the Theory of State Monopoly Capitalism," *Economy and Society*, 6. 3.
- Wallerstein, I. (1979): *The Capitalist World Econom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World Bank (1987): *Korea: Managing the Industrial Transition*, A World Bank Country Study Volumes I and II, Washington D.C.
- _____ (1988): *World Development Report 1988*, Washington D.C.
- _____ (1990): *World Development Report 1990*, Washington D.C.

金秀行 教授(서울大)의 論評: 첫째로, 이 논문은 歷史의 段階區分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있다. 역사가 과연 단계들을 거치면서 발달하고 있는가, 만약 단계들을 거친다면 段階들을 區分하는 基準 또는 尺度는 무엇인가, 그리고 단계를 구분하는 意義는 무엇인가에 관한 理論인 해명이 제대로 제시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예를 들면 0.8%와 1.5% 사이의 숫자상의 차이가 어떻게 단계구분의 척도로서 유효한지 이해하기 어렵다.

둘째로, '中進資本主義'는 사실상 현재의 '新興工業國'을 개념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제시된 것이다. 다시 말하면 韓國과 같은 新興工業國의 현상을 관찰하여 중진자본주의라는 類型을 만들어낸 것이다. 그러므로 韓國經濟를 통계상의 숫자에 의해 中進資本主義의 개념들에 적합하다고 '검증'하는 것은 동어반복이다.

셋째로, 앞으로의 政策課題로서 제시한 것——國民資本主義의 指向, 사회동질성과 成長潛在力의 제고, 政治民主化와 효율적 資源配分——은 지금까지 달성하지 못하였던 것중 발표자가 가장 重要하다고 생각한 것을 나열한 것에 불과하다. 왜 그것들이 지금까지 달성되지 못하였는가에 대한 깊은 고찰이 없기 때문에 그 政策課題들은 '이룩하지 못할 소망'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가 없다. '國民資本主義'는 資本主義와 國民이라는 두 概念이 쉽게 결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무시하고 있다. 만약 그 결합이 어렵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國民資本主義를 지향해야 한다'는 용변보다는 어떻게 그것을 달성할 수 있는가에 보다 큰 분

석력을 동원했어야 할 것이다.

金泰東 教授(成均館大)의 論評: 國家獨占資本主義論이나 成長段階理論만으로 韓國資本主義의 발전과정을 설명하는 데 여러 가지 限界가 있다는 지적과 中村 교수의 中進資本主義論이 하나의 유용한 분석틀로서 고려될 수 있다는 발표자의 見解에 대체로 공감한다. 韓國經濟가 中進資本主義의 단계에 있음은 누구도 부정하기 어려울 것이다.

발표자는 世界資本主義體制에의 編入 등 다섯 가지의 잣대를 가지고 實證的으로 평가함으로써 韓國經濟가 中進資本主義로 규정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이러한 分析이 좀더 설득력을 가지려면 다음의 몇 가지가 심층적으로 고려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첫째, 技術(technology)에 대한 분석이 보다 더 요구된다. 발표자에 의하면 總要素生産性增加率이 1960~73년 기간중 年평균 2.4%에 달하였으나 實質GNP증가율의 27%밖에 설명하지 못하여 선진국에 비해 떨어졌음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30%에 비하여 크게 낮다고는 볼 수 없는 것 같다. 1973년 이후는 어떠한 推移를 보였는가도 확인하여야 할 것이다. 韓國經濟는 지금까지 勞動, 資本 등 要素投入量의 증가와 海外技術과 海外市場에 크게 의존하는 量的 成長(extensive growth)의 길을 걸어왔다. 최근 몇 년의 國際收支惡化는 이러한 成長方法이 한계에 도달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質的 成長(intensive growth)을 위해서는 技術의 자체개발능력이 얼마나 되느냐가 관건일 것이다. 特許出願件數, 技術의 輸出·輸入推移, 賣出額對比 로얄티支給比率 등 여러 가지 지표를 이용한 분석이 추가될 필요가 있다. 그 밖에도 주요 첨단기술이 先進國에 비해 몇 년정도 뒤떨어졌는가도 검증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技術指標의 분석을 통해서 한국경제가 언제부터 中進資本主義段階에 들어섰는가 뿐만 아니라, 先進資本主義와의 격차를 좁혀가고 있는지, 오히려 더욱 낙후되어가고 있는지도 분명해질 것이다.

둘째, <表 2>, <表 3>, <表 4>, <表 7>, <表 8> 등에 海外要因의 분석이 포함되어 있으나 이러한 자료들이 의미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韓國貿易이 가지는 脆弱性이 다소 간과된 것 같다. 이것은 中村의 이론이 갖는 한계이기도 하다. 日本이나 기타 西歐諸國이 中進資本主義段階에 있을 때의 世界經濟는 그 당시 선진국들이 식민지 쟁탈을 둘러싸고 서로 경쟁하는 관계이었음에 반하여, 지금은 IMF-GATT 체제하에 先進國들이 서로 협조하는 데 익숙해졌다는 큰 차이가 있다. 우루과이 라운드 協商過程에서도 中進諸國을 견제하고 先進諸國그룹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움직임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美國의 通商壓力은 日本 등 先進國과의 갈등은 일정 한도에서 억제하고, 韓國, 臺灣, 브라질 등 中進諸國으로부터는 최대한의 양보를 받아내는 방향으로 행사되었다. 이렇게 선진국카르텔이 지배하는

세계경제에서 韓國經濟가 中進으로부터 先進段階로 발진하는 것은 그만큼 어려운 일이라 하겠다. 後進國으로서 갖는 이점보다는 不利點이 더욱 크다고 하겠다.

셋째, 資本主義의 발전은 市場經濟와 떨어져 생각할 수 없다. 물가, 임금, 금리 등 중요한 巨視變數가 시장의 需要・供給에 의하여 결정되는지, 政府의 介入度는 줄어들고 있는지, 獨寡占의 規制와 有效競爭 확보는 적정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資源의 效率的 배분을 보장하는 市場競爭制度가 확립되지 않고서는 資本主義下에서의 지속적인 발전은 불가능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현재의 韓國經濟가 中進資本主義의 段階에 있다는 네에는 異論의 여지가 없으나, 앞으로 순조롭게 先進圈의 일부로 편입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전망이 엇갈릴 수밖에 없다. 확률론으로 표현하자면, 지난 2~3년 사이에 韓國資本主義가 先進型化할 확률이 半減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이유는 위에서 지적한 技術開發, 海外要因, 市場制度 등 여러 측면에서 한계가 노출되었고, 그러한 한계를 극복하려는 노력은 부족하였기 때문이다.